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석 사 학위논문

학위 프로그램 언어 종류별로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

- 서울대 중국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

A Study about the Foreign Students' Acculturation Stress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Difference in Graduate Programs - Focusing on the Chinese Graduate Studen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202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장지아신

학위 프로그램 언어 종류별로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

- 서울대 중국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

지도 교수 한 정 훈

이 논문을 석 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 년 8 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장 지 아 신

장지아신의 석 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 년 8 월

위 원 장 _____ 은기수 _____ (인)

부위원장 _____ 박지환 _____ (인)

위 원 _____ 한정훈 _____ (인)

초 록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2005 년에 외국인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해 실시한 한국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 정책에 입각하여, 항상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영어를 사용하여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적응 실태를 살펴보자고 한다. 이를 연구하기 위해, 연구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학업 경쟁이 치열한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 서울대학교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14 명의 중국인 대학원생을 뽑아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응 실태를 파악했다.

서울대학교의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할 때, 학위 과정 별 언어 수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서울대 중국인 대학원생의 석사 과정생 및 박사 과정생의 비례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또한 최대한 실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공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비확률적 표본 추출 방법을 채택했다.

본 연구는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2 가지가 있다. 첫째, 서울대에 재학중인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의 학생과 영어 학위 프로그램의 학생들 간 문화적응 실태는 어떻게 다른가? 둘째, 이런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또 어떻게 다른가?

주제분석법을 이용한 횡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언어능력' 의 영역에 있어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보다 한국어 구사 능력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비교적 높은 한국어 구사 능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의사 및 감정 전달 실수의 걱정, 정확하지 않은 한국어 이해로 일어난 오해, 현지인과 언어능력 차이로 인한 부정적인 평가로 스트레스를 받아 한국 문화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또한 학생 유치 시 한국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영어 학위 프로그램에서도 부족한 영어 수업 강좌 수로 인한 학습 기회 부족에 따른 스트레스 때문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대인관계' 에서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과 영어 학위 프로그램의 학생은 모두 타지에 있기 때문에 "국가대표"의 의식을 가진다는 점, 또한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지식 부족 및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함에 따

라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겪고 있다. 의외로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 집단은 한국인 친구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패턴을 발견된다. 즉, 같은 취미를 공유하거나 같은 지역 거주로 인해 서로가 비슷한 언어 및 체험이 있을 때 한국인과 더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패턴이다.

‘문화차이’ 및 ‘향수병’의 영역에서는 두 집단에서 모두 ‘향수병’으로 인한 문화적응 부적응 현상이 포착되지 않는데, 이는 유학생의 색다른 성격 및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차이’영역에서도 다양한 성격 및 생활습관으로 인해 두 집단간 같은 패턴이 못 찾지만 수업의 구성 방식, 한국 음식, 술 문화, 야간 생활패턴, 그리고 미에 대한 추구 등 원인으로 인해 문화적응 부적응 현상이 포착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한계도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14 명 대학원생만 선정하고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계층의 학생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모두 중국인 유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중국어로 대화하여 라포(rapport)를 쉽게 형성할 수 있었고 보다 심층적인 대화가 이루어졌으나, 내부인 시각과 외부인 시각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요어 :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어 학위 프로그램, 중국인 유학생
학 번 : 2020-28793

목 차

제 1 장 서 론 1
1.1 문제 제기 1
1.2 선행연구 검토 12
가. 문화적응에 관한 선행연구 12
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 19
제 2 장 연구 방법 및 설계 설명 28
2.1 연구대상의 선정 28
2.2 설문조사 방법 30
2.3 질적 연구 방법-심층면접 33
2.4 반구조화 질문의 작성 및 심층면접의 실행 35
2.5 자료처리 방법 40
2.6 연구 절차 도식화 44
제 3 장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문화적응 실태 45
3.1 언어능력 45
3.2 대인관계 51
3.3 문화차이 57
3.4 향수병 61
3.5 소결 62
제 4 장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문화적응 실태 63
4.1 언어능력 63
4.2 대인관계 69
4.3 문화차이 73
4.4 향수병 77
4.5 소결 77
제 5 장 결론 79
5.1 연구 결론 및 논의 79
5.2 연구의 한계점 82
참고문헌 83
[부록 1] 인구학적 정보 묻는 설문지 91
[부록 2] 연구참여동의서 92
Abstract 94

표 목차

<표 1-1> 2021 년 출신 국가별로 유학생 현황(단위:명)....4
<표 1-2> GSIS 예로 대학교별 학위과정 정리.....8
<표 2-1> 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 계열 영어 학위 프로그램 정리.....29
<표 2-2> 연구참여자에 관한 인구학적 정보.....32
<표 2-3> Sandhu(1994) 개발한 영어 버전 ASSIS 척도.....36
<표 2-4> 주혜림(2015) 중국인 연구참여자 위하여 ASSIS 척도 재구성.....37
<표 2-5> 재구성한 ASSIS 척도에 기초한 반구조화질문.....38
<표 2-6> 분위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시 질문.....39

그림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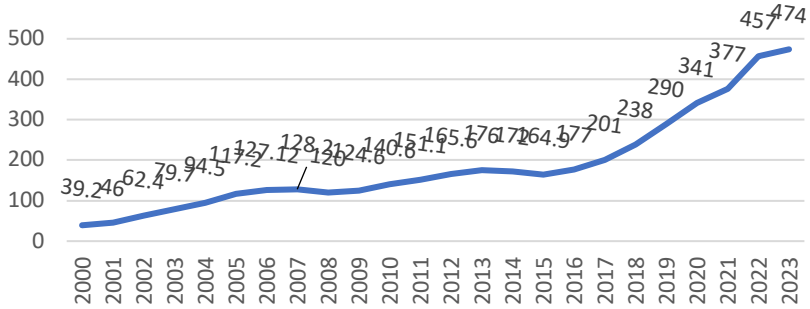
<그림 1-1> 2000 년~2023 년 전 중국 대학원 시험 지원 학생수(단위:만명). 1
<그림 1-2> 2010~2021 년도별 국내 외국인 유학생수(명) 3
<그림 1-3> 서울대학교 재학생 우울 정도 및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현황.....10
<그림 1-4> Berry의 문화적응의 4가지 모형.....14
<그림 2-1> 연구 모형의 식각화.....43
<그림 2-2> 연구 절차 도식화.....44
<그림 3-1>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좋은 한국인 친구의 수량 분포도(단위:명). 51
<그림 4-1>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언어능력 분포도(단위:명) 63
<그림 4-2>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좋은 한국인 친구의 수량 분포도(단위:명).....69

제 1 장 서 론

1.1 문제 제기

중국은 예로부터 “모든 것이 하찮은 것이고 공부만이 고상하다”(萬般皆下品, 唯有讀書高)란 속담이 있고 이를 통하여 중국인들이 공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 중국 취업시장의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졸업 후 원하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중국 사회에서 學歷是敲門磚(학력은 고무전이다) 란 말이 등장하며 치열한 학업 전쟁이 벌어졌다. 현재 중국 노동시장은 고학력 인재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직업을 구할 때 석박사 학위를 가진 고학력자가 학부생보다 더 유리하다는 담론이 있었다.(胡玲 • 张妮，2020) 이에 따라 지난 수십 년간 중국의 대학원 시험 응시생 수 역시 끊임없이 증가했다.

<그림 1 - 1 >2000년~2023년 전 중국 대학원 시험 지원 학생수(단위:만명)



출처: 중국 교육부통계청 (조사 기준일 202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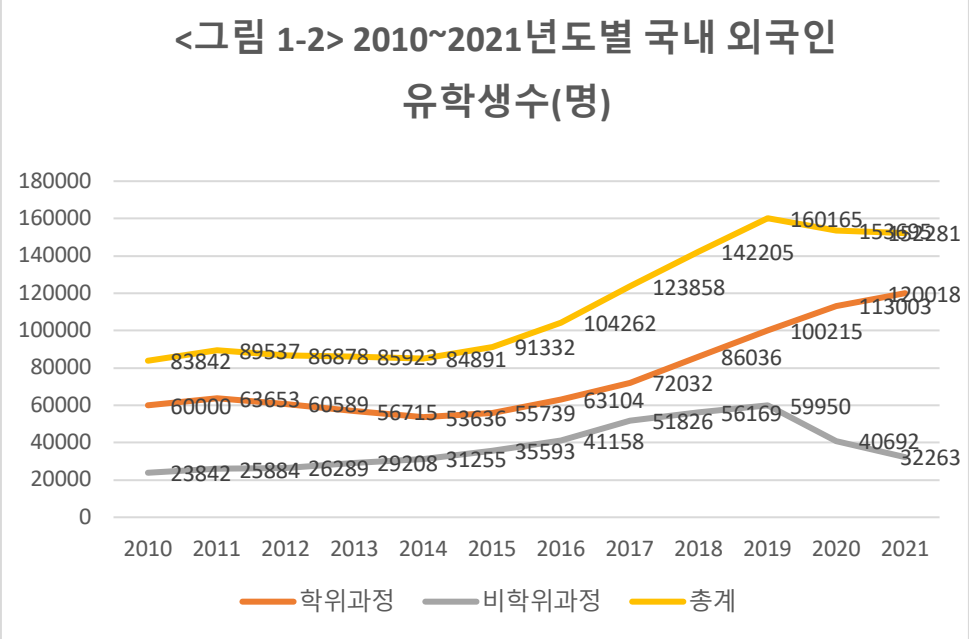
중국 교육청의 통계에 따르면 응시자 수는 2000 년 39 만 2000 명에서 2023 년 474 만 명으로 약 11 배 급속하게 늘었지만 대학원 시험 성공률은 그리 높지 않다. 2022 년 시험의 경우 457 만 명 수험생이 응시하였지만 합격한 학생수는 157 만 명에 불과하였다.(张燕, 2022) 이런 치열한 경쟁 속에 중국 학부모들은 자녀들의 해외 유학으로 눈길을 돌리

는데, 이때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한 한국은 그리 비싸지 않은 학비와 가까운 거리, 비슷한 기후로 중국 학생들의 인기 유학 국가로 떠올랐다.

이와 더불어 21 세기 초반에 접어 들며 한국 정부도 유능한 외국인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01 년 한국 정부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을 발표하였고 유학생 5 만 명의 유치를 목표로 세워 국내 대학 환경의 개선과 우대조치 등 다양화 전략을 짰다. 주요 전략으로는 '외국인 대상 영어수업과 전임 교사의 증원', '장학금 및 기숙사 증원', '원스톱 상담 방식 구축과 입학 절차의 간단화' '유학생 수량과 대학 평가 제도의 연계' 등이 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의 실시 이후 유학생의 총수가 소폭 상승하였다. 2004 년에 한국 교육인적자원부(현 한국교육부)는 ‘Study Korea Project’와 ‘Global Korea Scholarship’(한국정부초정장학금)1 사업까지 확대시켰다. 2005 년에는 외국인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해 한국 정부는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도 도입하였다. 2008 년, 2012 년 그리고 2015 년에 한국 정부는 당시 외국인 유학 현황에 맞춰 목표를 세번에 걸쳐 재설정하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2004 년 추진된 ‘Study Korea Project’의 결과로, 7 년간 외국인 유학생 수는 약 1 만 6000 명에서 8 만 명 넘는 수치로 급속히 증가하였다. 유학생의 수가 어느정도 확보됨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학생의 관리 및 적응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14 년 3 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부터 취업까지 전 과정을 담은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발표는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방안은 그

1 Global Korea Scholarship 장학제도는 한국 정부가 1967 년부터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장학금 지원 사업이며 교육부가 주관하고 국립국제교육원이 시행하고 있다. 2004 년에 정부는 아시아 우수 학생의 모집을 목표로 삼으면서 장학금 제도가 다시 정비됐다.(姜子莲 2020：16)

동안 유치정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유학생들의 학업과 생활 부적응으로 인한 배타적 문화 의식과 반한 감정을 개선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발급과 심사 절차의 간소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학업 지원, 취업박람회 개최를 통한 유학생 취업문제의 해결 3 가지 측면에서 출발하여 현재까지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유학생 수는 2014 년 85,923 명부터 2021 년 152,281 명까지 배로 급증하였다.



출처 : 2021 년 한국교육부 교육기본통계,

(조사 기준일 2021.4.1)[1]

[1] 외국인유학생수: 일반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 전공대학,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기능대학의 학위/비학위 과정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

이런 상황에서 중국 국내의 치열한 대학원 응시 경쟁으로 인한 유학 인기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유학생 유치 노력이 결합하여 Covid 시기 중국 유학생 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학생 집단에 있어 중국 유학생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2021 년 한국 교육부 교육기본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으로 유학 온 학생들은 주로 학위과정생이며, 2021 년의 학위과정생 수는 비학위과정생 수(32,263 명)의 4 배 가까이 달하였다. 이 중에서 중국인 유학생이 가장 많아 거의 절반 비율인 44.2%를 차지하였다. 베트남 유학생 수가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지만 그 수치는 중국 학생 수의 절반에 불과하다. (<표 1-1 참조)>

<표 1-1> 2021 년 출신 국가별로 유학생 현황(단위:명)

국적	유학생수	비율
중국	67,348	**44.20%**
베트남	35,843	23.50%
몽골	6,028	4%
일본	3,818	2.50%
미국	2,218	1.50%
기타	37,026	24.30%
	152,281	100%

출처 : 교육통계서비스,2021 년 교육기본통계

(조사 기준일 2021.4.1)[1]

1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비율(%)=(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 수/해당년도총 외국인유학수)*100
출신국가별 외국인 유학생에는 해당 국가의 재외동포가 포함됨
기타에는 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미국 이외의 모든 국가가 포함됨

급속한 유학생의 증가 속도를 감안하여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사회와 그들의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하여 많은 연구를 진행되어 왔다. 특히 연구의 편의성이라는 점에 입각하여 많은 학자들이 외국인 유학생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 유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해 그들이 한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학습, 취업 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외국인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 학위 프로그램들이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모두 동일시하여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이는 한국 정부가 외국인 유학생을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 또는 보다 전문성이 높은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영문 수강 학위 프로그램들을 개발했기 때문이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의 측면에서, 영어로 한국에서 공부하는 것은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유학생에게는 입학의 어려움을 크게 줄인다는 장점을 가진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 유학생에게도 수지맞는 장사라 생각하여 많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한국까지 보내 영어 학위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한다. 이들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더라도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문화를 접하면서 차근차근 한국어를 익히게 된다. 동시에 교과 과정 이수 및 졸업을 위해 매일 영어를 사용해 학업활동을 이행해야 하며 졸업한 후 전문성 있고 글로벌한 인재로 변할 수 있다고 기대된다.

영어 학위 프로그램은 학부 과정이나 대학원 과정에서 한국 대학교에서 전반적으로 개설되고 있다. 가장 유명한 프로그램은 GSIS(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1와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2를 뽑을 수 있다. 그 이외에도 많은 학교들이 글로벌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의, 발표, 논문 모두 영어로 학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학위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였다. <표 1-2>에는 GSIS 프로그램을 개설한 학교들을 정리해두었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영어 학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연세대학교는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UIC)3란 단과대학을 성립했고 미국 또는 해외고를 졸업하고 한국 대학교 진학하려고 하는 한국인 학생과 일

---

1 GSIS(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프로그램: GSIS 는 2 년간의 국제 연구 석사 과정을 제공한다.이 과정은 국제통상(International Commerce), 국제 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 지역학(International Area Studies), 한국학(Korean Studies) 및 국제 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의 5 개 주요 연구 부서를 기반으로 한다. 수업은 주로 영어로 진행되며 전공에 따라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선택 과목도 있을 수 있다. 프로그램 이름과 전공 개설이 대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학생들이 신청할 때도 한국어 성적 증명을 강제적으로 요구하지 않다. 한국학(Korean Studies)과정의 경우만 한국어를 이용해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인도 지원이 가능하며 신청 조건도 학교마다 조금씩 달라 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글로벌인재특별전형 II 통로를 통해 지원이 가능한다. (출처: 서울대학교 2023 학년도 후기 글로벌인재 특별전형 모집 안내).
GSIS 프로그램이 개설된 학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중앙대학교, 부산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GSIAS)이다.
2 MBA(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영어 프로그램도 전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대학교들이 개설되고 있고 학교마다 프로그램명칭이 조금씩 다르나 가장 유명한 대학교들을 예로 소개하자면 서울대학교의 Full Time MBA 프로그램, 고려대학교의 Global MBA 와 Global MIM(Master in Management)프로그램, 연세대학교의 Global MBA 프로그램과 KAIST(한국과학기술원)의 Techno MBA, Finance MBA, Impact MBA 프로그램이다.
*여기에는 영어만 사용해도 수업이나 졸업에 있어 지장이 없는 영어 전일제 프로그램만 포함시켰다.
3 Underwood International College(UIC): UIC 는 단과대학이자 대학 내에 아래의 3 개 학부가 개설하고 있다.1) UD (Underwood Division,언더우드계열)2) HASS (Humanities, Arts and Social Sciences Division,융합인문사회계열 3)ISE (Integrated Science and Engineering Division,융합과학공학계열)

반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모집하고 있다. 그 이외에도 성균관대학교는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한국어 트랙(track)과 영어 트랙(track)1을 병행하여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을 같이 모집하고 있다. 박사 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졸업까지 학업활동을 할 때 영어만 사용하는 예가 더 많다. 박사과정 지원은 석사와 달리 교수님께 먼저 연락을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자연공학, 공학 혹은 의학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교수님과 영어로 대화해 한국어 능력은 강제로 요구하지는 않다. 그 반면에 인문계 전공의 박사 과정들은 다른 양상이다. 인문계 전공의 경우 대다수 박사가 한국어 능력을 갖춰야 한국에서 인문사회계열에 관련된 문헌이나 자료들을 읽을 수 있고 그후에 연구까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능력은 외국인의 원활한 유학생활에 있어 피할 수 없는 최우선 조건이므로 많은 학자들이 언어능력과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왔다. 상당수 자연공학, 공학, 의학을 연구하는 박사들은 학업이나 일상생활에서 주로 영어를 이용하기 때문에 일반 한국 유학생의 생활상과 다르지만 유학생 생활 적응 상황에 관한 연구에서 소홀히 다뤄졌다.

1 영어트랙(track): 최종 학위 취득할 때까지 영어만 이용해도 되는 과정. 또한 영어트랙 지원자에게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을 졸업 요건으로 부과하지 않음. 학생은 대학교 첫 학년은 소프트웨어학과나 글로벌융합학부(글로벌융합전공)을 지원을 하고 제 2 학년은 첫 학년의 성적 및 학생 본인의 소원에 따라 지원했던 계열에 해당되는 전공을 진급할 수 있음.(성균관대학교 2023 학년 봄 학기 모집 요강 참조)

<표 1-2> GSIS 예로 대학교별 학위과정 정리[1]

학교 명칭	소속기관	학사 과정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서울대학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없음	있음	있음
연세대학교		없음	있음	있음
고려대학교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CIS)	있음	없음	없음
	Division of Global Korean Studies	있음	없음	있음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없음	있음	있음
경희대학교	Graduate School of Pan-Pacific International Studies(GSP)	없음	있음	있음
아주대학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없음	있음	없음
이화여자대학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없음	있음	있음
한양대학교	College of International Studies	있음	있음	있음
서강대학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없음	있음	있음
중앙대학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없음	있음	없음
부산대학교	Department of Global Studies	있음	있음	없음
한국외국어대학교	Division of International Studies	있음	없음	없음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없음	있음	있음

1 각 대학교의 외국인 입학 모집요강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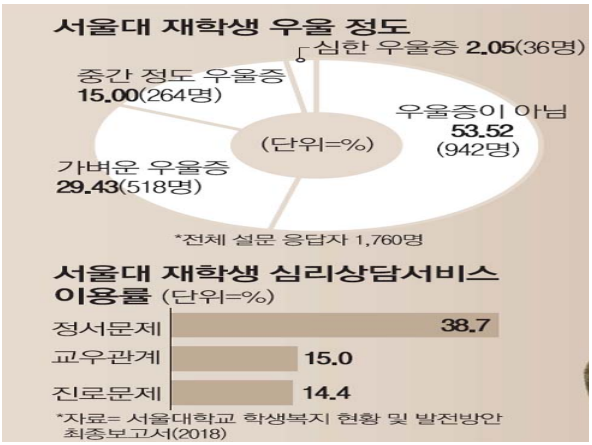
언어능력을 좋으면 좋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주장하는 연구가 있는 반면(장연,2005) 한국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한국어를 잘하는 외국인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을 수도 있다는 상반된 지적이 존재한다.(Arushanyan Mariam, 2019)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한국에 있는 모든 외국인들이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설정했으나 대부분의 생활이나 학습환경에서 영어만 사용하고 있는 재한 유학생들을 간과하였다. 아울러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영역은 학업활동이란 주장은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관식, 2011)그러나 영어 학위 프로그램의 경우 교내 학생이나 교수와 소통할 때 주로 영어로 이뤄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국어 능력의 부족은 이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것인지, 또한 '완전한' 한국 환경에 놓인 다른 한국어 학위 과정에 있는 유학생들과 영어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양상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 밖에도 많은 학자들이 중국인 유학생이 한국에 있는 외국인 유학생의 절반에 육박하는 현상에 주목해 중국 학생들과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설문 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SPSS로 양적인 연구이자 주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와타나베 요시야스, 2002)(이경상 외,2018)(서지연, 2009),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 척도의 타당화(정옥정 외,2021),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그의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김희경 외,2010)에 머물고 있다. 질적 연구도 존재하나, 주로 보조 수단으로 이용되며 몇 명 설문 대상자만 뽑아 분석하고 조사대상자도 주로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몇 군데 대학교에 국한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자들마다 언어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에 대한 결론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여 한국에서 영어로 학위과정을 밟고 있는 소외된 특수 집단의 시야에 입각하여 그들의

한국 문화적응 실태 및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많은 학자가 다루었던 경희대학교 또한 성균관대학교에 벗어나 한국에서 최고 학업 경쟁을 경험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유학생으로 조사 대상을 한정하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깊이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서울대는 전국에서 학업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한국 학생들과 외국인 학생들이 모여 타 대학교들보다 더 치열한 학업 경쟁과 더 큰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2018년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방안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서울대 재학생들은 2명중 1명꼴로 우울증을 겪고 있다. 1

<그림1-3> 서울대학교 재학생 우울 정도 및 심리상담서비스 이용 현황



출처: 매일경제,"최고대학 들어왔지만…" 서울대생 절반 우울증세, 보도 기재일 2018.11.30

이런 고압적인 환경에서 다양한 문화적 부적응 현상은 더욱 뚜렷하게 관찰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

1 이번 연구는 서울대 학생 복지의 종합적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학생,대학원생, 외국인, 장애학생 등 세부 집단을 모두 누락 없이 다루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울대 재학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을 중심으로 실제 학위 과정생 분포를 반영하여 조사대상을 뽑아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의 독립 변수는 학위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이며 종속변수는 서울대 재학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이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을 학위과정 및 사용하는 언어별로 분리시켜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을 고찰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섭외된 중국인 대학원생으로 하여금 반구조화한 심층면접을 통해 최대한 발화하도록 하여 한국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혹은 영어만 주로 사용하는 유학들이 얼마나 그들의 문화적응에 있어 지장을 주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동시에 영어 학위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과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을 비교함으로써 그들의 문화적응 양상에 어떤 영역에서 차이가 보이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다시 정리하자면 본 연구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서울대 재학중인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의 학생 및 영어 학위 프로그램의 학생은 문화적응 실태는 어떻게 다른가?
2. 이런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또 어떻게 다른가?

이 논문을 통해서 학교가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할 때 언어 및 학위 과정 별로 맞춤식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감소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며, 열정으로 멀지 않은 한국에 와서 영어로 공부하는 특수 유학생 단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도 관련 논문이 많이 나와 이 연구의 공백을 메워주기를 기대한다.

1.2 선행연구 검토

가. 문화적응(Acculturation)에 관한 선행 연구

광범위한 의미에서의 문화적응은 어떤 인물이 새로운 문화에 들어서서 직면해야 하는 모든 현상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모호하면서 범위가 워낙 넓어 이에 관한 명확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좀 더 학술적인 정의 정리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 문화적응(Acculturation)이 영어 문헌에 처음 등장한 것은 1880 년에 미국 민족사무국의 Powell 이 문화적응(Acculturation)을 새로운 문화에서 온 사람들이 모방한 행위라고 규정하면서 생긴 심리적 변화라고 지적하였다.(Rudmin,2003) 그 후에 인류학자 Reinfield, Linton 및 Herskovit 도 이에 대해 “개인으로 구성되고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두 집단 사이에 지속적이고 직접적인 문화 접촉이 발생하여 한쪽 또는 양쪽의 원래 문화 패턴이 변화하는 현상”이라고 정의내렸다.[1] 그 후 1954 년에 Siegel 과 Voget 같은 인류학자들은 비교적 광범위하고 간결한 정의를 내렸다. 그들은 문화적응은 " 두 개 이상의 자립적인 문화 시스템이 연결되어 발생하는 문화적인 변천 "이라고 정의하였다.(Rudmin,2003)

인류학의 문화 적응 개념은 비교적 광범위하고 조작성이 강하지 않으나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문화적응은 문화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주로 집단 수준의 분석을 수행해 왔다. 따라서 문화적응 과정에서 개인의 심리적 변화는 비교적 많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이를 바탕으로 Graves 는 1967 년 심리학적인 문화적응 개념을 처음 제시하였다. 그는 심리학적 문화적응 개념에 주로 문화적응 과정에서

1 D. J. Sam, J. W. Berry,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1.

의 개인의 행동, 태도 및 정신 건강의 변화를 포함시켰다. 이를 시작으로 문화적응에 대한 실증 및 이론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집단 수준에서 문화적응을 연구하는 모델을 벗어나 문화적응 연구를 다문화 심리학 분야로 확장시켰다. (杨宝琰 • 万明钢，2010)

이후 캐나다 다문화심리학자 Berry 는 인류학의 이론과 방법을 참고해 이주민과 본토박이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문화적응 개념을 더욱 개선하였다. Berry 에 따르면 완전한 문화적응 개념은 수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문화적응에는 두 가지 수준이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하나는 문화 수준 또는 집단 수준에서의 문화적응, 즉 문화 접촉 후 사회 구조, 경제적 기반 및 정치 조직 측면에서 발생하는 변화이고 다른 하나는 심리 또는 개인 수준에서의 문화적응, 즉 문화 접촉 후 개개인의 행동 방식, 가치 관념, 태도 및 정체성 등 측면에서 발생하는 변화를 의미한다.(Berry,1990)이와 더불어 Berry 는 모 문화(Mother culture)의 유지 및 새로운 문화의 수용이 얼마나 진행되는지에 따라 문화적응의 4 가지 유형을 추출해 내었으며,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분리”(Sepa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가 있다.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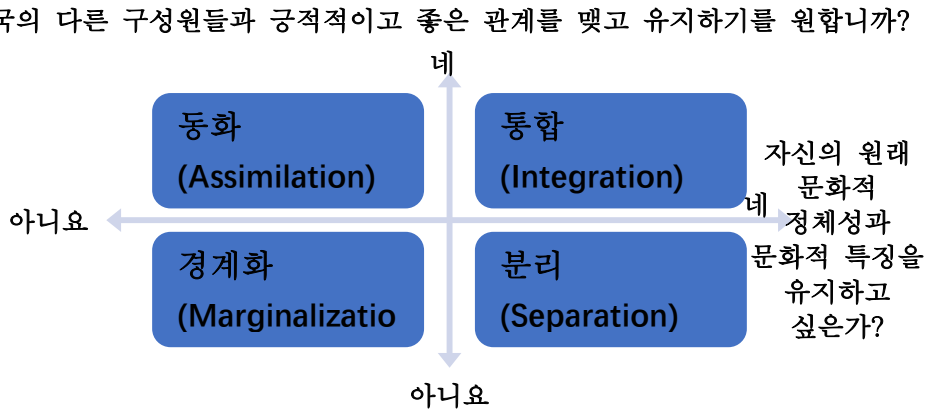
①“동화” (Assimilation) : 한 개인은 본래의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동시에 매일 적극적으로 다른 문화와의 상호 작용을 모색한다.

②“분리” (Separation) : 한 개인은 자신의 모 문화만을 유지하고 현지 사회 문화 집단과의 관계를 중시하지 않는다.

③“통합”(Integration) : 한 개인이 자신의 모 문화를 유지하는 것 또한 자신의 모 문화와 다른 현지인들의 상호작용에 모두 관심을 갖는 현상이다. 자신의 모 문화의 완전성을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더 큰 소셜 네트워크의 구성원인 중 한 명인 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찾는 상태이다.

④“주변화”(Marginalization): 한 개인이 보통 걷잡을 수 없는 문화 손실(Cultural Loss)1로 인해 문화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또한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에 관심이 적는 상태(일반적으로 따돌림이나 차별 때문에)이다.

<그림 1-4> Berry 의 문화적응의 4 가지 모형



[1] 문화 손실(Cultural Loss): 문화 손실은 보통 환경의 변화로 인해 한 사람의 문화를 잃는 것으로 묘사된다. 이러한 변화는 이민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한 개인이 많은 다른 문화들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시도할 때, 그 개인은 결국 전혀 문화를 갖지 못 하게 된다는 현상.(출처: Dictionary of Multicultural Psychology)

Berry 의 주장에 따르면 “주변화”된 문화적응자가 느끼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높으며, “분리”된 상태에서의 문화적응자가 받는 심리적 스트레스는 그 뒤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통합”된 문화적응자는 심리적 스트레스가 가장 낮으며 “동화”된 상태에서의 문화적응자가 그 뒤에 있다. 도식화로 하면 위의 도표와 같다.

이처럼 Berry 는 문화적응을 어떤 상태로 이해하는 반면 독일 심리학자 Dieter Danckwortt 는 유학생의 시각에 입각하여 문화적응이론을 정립하였다. 그의 이론은 유학생들의 다문화환경에서의 적응 문제를 분석하는 데 전문적으로 사용된다. 그는 문화적응의 영역, 과정, 단계, 그리고 문화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였다. Danckwortt 의 이론은 독일어 국가에서 문화적응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문화적응 이론 중 하나이며 관련 연구들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다. Danckwortt 의 견해에 따르면 사람이 일생 동안 경험하는 적응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적응은 출생 후 유아가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적응이고 두 번째 적응은 어린이, 청소년 또한 성인이 가족 이외의 문화, 즉 모 문화권에 속한 다른 사회 집단에 대한 적응이며 이 두 가지 적응은 모두 모 문화 환경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지적하였다. 세 번째 적응은 바로 본문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유학생의 문화 적응, 즉 사회 구성원들이 낯선 문화 환경에 진입한 후 낯선 문화에 적응하는 현상이다. (Danckwortt, 1959) 그에 따르면 낯선 문화에 대한 적응은 낯선 문화 요소의 흡수도 포함한다. 기존 문화 요소를 바꾸거나 버리는 것, 두 가지 문화 요소를 종합해 새로운 문화 모델을 만드는 것도 포함된다. 낯선 문화에 대한 적응은 낯선 문화의 요소를 흡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래의 문화 요소를 바꾸거나 버리는 것, 그리고 두 가지 문화 요소를 종합하여 완전히 새로운 문화 모델을 창조하는 것을 포함한다.

(Danckwortt, 1959)문화적응이론에 따르면 유학생들이 겪는 문화적응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첫째, 문화적응은 특정 또는 특정 분야에서만 일어난다. 그리고 체류국의 문화가 유학생들의 모국에서 행동하는 방식과 다르게 요구할 때에만 발생한다. 둘째, 문화적응은 인지적 전환 과정이다. 이러한 인식 및 행동 방식의 변화는 사회적 충돌을 피하기 위해 다른 사회 구성원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셋째, 문화적응을 시도하는 개개인은 문화적응에 있어 자기 참여의 정도가 다르다. 문화적응은 표면적인 대응일 수도 있고 인격 구조의 심층적인 변화일 수도 있다. 넷째, 문화적응은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문화적응은 무의식적으로, 즉 은연중에 발생한다. 다섯째, 문화적응은 다양한 사회의 하위 집단에 대한 적응이다. 유학생이 접촉하게 되는 다양한 집단이 많을수록 그들이 수용하고 적응해야 하는 사회적 역할도 많아지고 적응 수준도 높아진다. 여섯째, 문화적응 단계에 따라 적응에 참여하는 유학생의 적극성과 능동성도 크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유학생들의 유학생활이 시작할 때 그들의 적응하려는 적극성이 비교적 높다. 일곱째, 체류국 문화의 개방성과 폐쇄성은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에 있어 큰 영향을 미친다. 체류국 문화가 외래자에게 갈수록 개방적이라면 외래자의 문화적응을 촉진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된다. (Danckwortt, 1959)

Berry 의 4 가지 문화적응 유형 및 Danckwortt 의 문화적응이론과 달리 Oberg 와 Lysgaard 는 문화적응자가 다문화 환경에 이주하게 되는 시간선에 입각하여 문화적응를 단계별로 설명하고 있다. (Oberg,1960)(Lysgaard,1955)

Oberg 는 “문화 충격(Culture Shock)”[1]이란 용어에 기대 이를 확장시켜 문화충격이론을 창조하여 문화적응자들의 익숙한 환경과 사교 방식을 잃게 됨으로 인한 불안한 심리와 행동 반응을 설명하는 데 쓰고 있다. Oberg 의 문화 충격 이론에서는 다문화환경에서 체류하면서 나타나던 정서적 반응을 따라 문화적응 과정은 밀월 단계, 위기 단계, 회복 단계와 적응 단계 4 단계로 분류하였다.(1960)(정진경·양계민,2004)

단계마다 문화적응의 양상은 다음과 같다.

①밀월(honeymoon) 단계: 밀월(honeymoon) 은 며칠에서 6 개월 정도까지 지속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개인은 새로운 환경에 매료되었고 다양한 집단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

②위기단계: 체류국의 문화와 초보적으로 접촉한 이들은 실제 생활상을 직접 마주하며 불편과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다. 문화충격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큰 동시에 그들은 새로운 삶, 도전, 상황에 대한 다양한 인식과 자기해석으로 인해 두려움, 무력감, 분노, 우울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부정적인 영향이 누적되면서 소수집단 구성원들이 주류 사회와 문화 활동에서 유리하게 되고, 이 단계에서 동포에 대한 애착이 크게 증가한다.

③회복단계: 이 단계에서 문화적응자 간의 다문화환경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다. 도전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들은 새로운 환경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1] “Culture Shock”는 1951 년 DuBois 에 의해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다른 문화권에 진입했을 때 일어난 혼란스러운 경험을 가리킨다.(출처: 다문화심리백과사전, The Encyclopedia of Cross-Cultural Psychology)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며 위기를 해결하고 다문화를 배워나간다.

④적응단계: 이 단계는 거의 또는 완전한 회복단계이다. 문화적응자들은 체류국에 대해 더 이상 빙산의 일각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심층적인 문화까지 음미라도 하기 시작한다. 체류국에 떠나 모국으로 돌아갈 때 그리워할 수도 있다.

이와 비슷하게 Lysgaard 도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초기의 감탄, 이후의 좌절, 점차적인 적응의 U-curve 가설을 내세웠다. (Lysgaard,1955) (정진경·양계민,2004) 오랫동안 헤어진 모국으로 돌아간 뒤에도 비슷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똑같은 문화적응 과정, 즉 U-curve 를 다시 겪게 되며 이때 W-curve 를 이룬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Gullahorn & Gullahorn, 1963)

이를 바탕으로 거의 매해 외국 유학생의 증가 추세를 감안하여 많은 한국 학자들도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연구하기 시작하였다. 중국 유학생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기 때문에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도 역시 주로 중국인 유학생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마경희는 3 명의 연구팀원들과 서울 및 경기도 소재 4 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12 명의 중국 유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하여 그들의 문화적응 실태와 대응전략을 지적했다. 그 결과, 일상생활 속에 부딪히는 언어 장벽, 높은 학업 성취 욕구에 따른 내적 불안감, 코로나 19 로 인해 증폭되는 외로움과 고립감, 노골적인 차별과 미세공격

(microaggression)[1]의 반복적 경험, 지도교수와의 소통 부족은 조사대상의 문화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2022)이에 대해 마경희는 정부 지원 정책의 마련과 고등교육기관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외에도 배상률(2017) 및 그의 동료들은 2017 년에 중국인 학부 및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면접 방법 및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이들이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겪고 있는 어려움들을 소개하였다. 동시에 국제교류담당직원 및 전문가와도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그는 대학의 역할, 지역 사회의 역할과 정부의 역할을 3 가지 층면으로 나누어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김현진(2018)은 수도권 소재 19 개 대학과 전북 소재 대학 1 곳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베트남 유학생 몽골인 유학생 그리고 일본 유학생 총 185 명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었던 데이터들을 SPSS 를 이용하여 정리, 이들의 문화적응 양상과 문화적응 전략을 비교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 4 개 나라로부터 유학을 온 학생들은 모두 한국어 수업에 대한 적응도가 가장 낮았으나 대학 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타났다.

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 연구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들에서 문화적응 스트레스란 용어도 빈번히 언급된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양한 스트레스 중 한 종류로 주로 문화적응 과정속에서 겪게 되는 것이다.(Berry 외, 1987) 이론적으로 보면

1 미세공격은 특정 사회집단에 대해 가해자가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미묘하지만 해로운 행동으로 노골적인 행동보다 더 심각한 정신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마경희,2022)

문화 접촉이 되는 두 집단간에 모두 문화적응 현상이 나타나야 되지만 소집단의 개인이 새로운 문화환경을 적응하는데 있어 더 쉽게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느끼게 된다. 정명희(2011)는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자신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문화적 배경과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배경과 다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면서 경험하는 심리적, 신체적 역기능' 이란 정의를 내리기도 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역시도 한국 학자들이 한국에 년도마다 늘어나는 외국인 수치를 감지하여 계속적으로 연구해 왔다. 한국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크게 나누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 척도,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그의 영향요인 간의 상관관계 세가지로 들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에 관하여 이경상과 그의 동료들은 지역(수도권 및 비수도권)별, 교급(학부/대학원)별로 할당표집의 방법을 이용하여 총 694 명의 중국 유학생을 뽑아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어의 어려움, 외로움에 의한 어려움, 한국인 선후배/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한국사회의 중국인에 대한 차별은 모두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했다.(이경상 외, 2018)

이관식은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주로 서울에만 중점을 두었으나 광주 및 전남 지역에도 대학 수가 많다는 실정을 감안하여 지방 한국어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관식은 광주 지역 소재 대학에서 한국어를 학습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따로 추려 이들의 문화적응 양상을 연구했다. 그 결과, 광주 지역 중국인 유학생들은 한국에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과 별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이가 있지 않다고 밝혀졌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양상은 '대인관계' '생활습관' '학업활동' 그리고 '향수병'으로 나누며 이중에서 '학업활동' 영역에서 학생들은 문화

적응 스트레스가 가장 높다고 받는 반면 '향수병' 영역에서는 스트레스가 가장 적다고 주장했다.(2011) 그 이외에도 김희경은 그의 동료들과 2009 년 10 월부터 12 월까지 충청남도에 소재한 3 개 대학교에서 201 명 중국인 유학생을 뽑아 SPSS 를 이용하여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요인을 분석한 바 있다. 그 결과, 우울이 가장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고 그 뒤에 학업성적과 한국어 말하기 능력도 유의한 영향요인으로 지적했다. 학업성적에서 학생의 성적이 낮을수록, 또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낮을수록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높아진다.(2010) 이처럼 문화적응의 영향요인에 관련 연구는 주로 설문조사의 방법을 채택하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진행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영향 요인은 어떤 것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형성에 있어 힘이 될 건지 보여줄 뿐 문화적응 스트레스 정확한 크기는 여전히 알 수가 없다. 따라서 많은 학자들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에 대해도 많은 연구를 시도했다. 가장 대표적인 측정 척도는 Sandhu 및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ASSIS(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척도로 꼽힐 수 있다. Sandhu 는 1994 년에 미국에 유학을 온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첫 문화적응 측정 척도 개발을 시도했다. 그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학생들이 유학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중 가장 빈번히 나타난 주제 가운데 12 개 주제를 선정해 우선 125 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 초안을 작성했다. 그후에 Sandhu 는 총 17 명의 학부와 대학원 유학생을 모아 파일럿 시험을 한 뒤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의미 중복 또한 모호한 문항의 일부를 삭제했으며 78 개 문항으로 구성된 수정본 설문지를 마련했다. 게다가 Sandhu 는 문항들은 최대한 상세하게 유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반영할 수 있도록 두 대학에서 다문화 상담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 두 명을 초빙하여 심사를 거쳤다. 이어 그는 이 수정된 설문지를 이용해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총 128 건의 유효 설문지를 회수했다. Sandhu 는 이를 이용해 SPSS 의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과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거쳐 최종적으로 7 대 영역, 36 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개발했다. (1994)1이 측정 척도는 자기보고식 5 점 Likert 척도2이며 답하는 사람은 총점이 36 에서 180 까지 득점할 수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조사대상자가 느끼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기반하여 많은 한국 학자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이승종(1996)은 최초로 이 ASSIS 를 한국어로 번역하여 연구했다. 그후에 황지인(2008)은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이 한국인과 마찬가지로 아시아인이라는 점을 감안하며 인종과 피부색은 별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데에 있어 영향이 없다고 생각하여 Sandhu 의 ASSIS 척도안에서 포함된 인종 및 피부색 등과 관련된 문항들 총 3 개를 삭제했다. 또한 조사대상인 중국인 유학생의 편의를 위해 이 재구성한 척도를 중국어로 번안했다. 이에 더해 趙晨薇(2020)는 재한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

---

[1] ASSIS 의 7 대 영역은 다음과 같다.
1)지각된 차별감(Perceived Discrimination)
2)향수병(Homesickness)
3)지각된 적대감(Perceived Hate)
4)두려움(Fear)
5)문화적 충격(Stress Due to Change/Culture Shock)
6)죄책감(Guilt)
7)기타(사회적 고립, 열등감, 불신, 의사소통 등)(Miscellaneous)

[2] Earl R. Babbie 의<사회조사방법론>에 의하면 리커트 척도는 문장을 제시하고 그것에 대해 대답하는 형식이다. 응답자들은 그 문장에 대한 동의/비동의 수준을 응답하고, 응답 범주에 명확한 서열성이 있기 때문에 설문 응답을 통해 응답자의 동의 및 반대의 강도를 알 수 있다.
5 단계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예:
질문: 아침에 공복 운동은 적합하다.
답: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그들의 언어불안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한 바가 있다. 趙晨薇(2020)는 언어불안이란 측면에 중점을 둬 이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도를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충격, 향수병과 한국어 학습 총 4 가지 영역을 설정해 신뢰도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22 문항의 재수정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외에도 정옥정(2021) 및 그의 동료들은 ASSIS 척도는 미국에 유학을 간 유학생을 대상으로 개발된 척도이므로 다소 한국에 있는 중국 유학생의 실제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으며 재한 중국인 학부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문항 수정 및 예비 문항 작성, 내용타당도 분석, 중국어 번역,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의 6 단계를 거쳐 재구성 및 타당화 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7 요인 및 31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를 개발하여 신뢰도분석까지 통과했으며 학부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였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척도가 개발됨에 따라, 학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한 후 영향요인들과 얼마나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해왔다. 이중에서 언어장벽이 문화적응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언어와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표적인 연구들로는 언어불안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에 관한 연구(김지혜,2019) (李喆永, 2019) (赵晨薇, 2020), 언어능력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장연,2005)(이은정,2009)(허윤범,2017) (Arushanyan Mariam,2019) 등이 꼽힌다.

장연(2005)는 한국 각 정규대학에서 D-2 와 D-4 비자로 공부하고 있는 중국 어학연수생, 교환학생,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언어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살펴봤다. 언어 능력 판정 부분에서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4 가

지 영역으로 나누어 가지 평가 문항을 이용해서 이뤄졌다.[1]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눠진 18 문항의 설문지를 조사 대상들에게 배포했으며 이를 통해 245 부 유효설문지를 회수하여 SPSS 통계프로그램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한국어 숙달 수준은 한국 문화적응 스트레스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대인관계 면에서, 생활습관 면에서 학업활동 측면에서 한국문화 스트레스를 덜 경험하다는 결론이다. 장연(2005)은 논문의 결론을 일반화하기 위해서 재한중국유학생회의 도움을 받아 서울, 인천, 부산, 광주, 전남 등 지역에 있는 유학생들을 모두 연구에 포함시키는 시도를 했다는 점에서 중국인 유학생이란 집단을 최대한 대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기여를 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장연(2005)의 연구에서 민족과 관계없이 중국 한족, 조선족, 만족, 몽골족 등을 모두 조사대상으로 삼는 것은 본 연구에서는 타당하지 않다고 여긴다. 조선족은 다른 민족의 중국인 유학생과는 달리 한국인과 더 비슷한 문화 배경을 가지므로 연구의 일반성 및 대표성을 위해 조사 대상으로부터 제외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은정(2009)은 비교적 한국어 학습자의 수가 많고, 국적이 다양한 경희대학교 국제교육원을 대상으로 삼아 이중에서 한국어 학습자 202 명 뽑았다.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 대상의 인구학적 정보와 사회적 지지 여부, 한국어의 숙달도 등 상황을 파악했다.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에 있어 이은정은 와타나베 요시야스(2002)[2]에서 제시한 척도를 기초로 자기 조사대상(다국적 재한 유학생)

---

[1] 한국어 숙달 수준 측정 척도의 신뢰성 평가 결과는 Cronbach's α=.86 으로 나타났으므로 장연은 신뢰성이 높다고 생각하여 사용했다. 이 측도는 '잘 한다', '대체로 잘 한다', '보통이다', '거의 못 한다', '전혀 못 한다' 등 5 단계로 설정했다.

[2] 와타나베 요시야스(2002:18)는 한국어 문화적응과 관련된 영역은 6 가지로 제시하였다.

의 실제상황을 더 반영할 수 있도록 재구성했다.[1] 이 결과, 초급 학습자의 경우는 중고급 학습자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 요인에서 유의미한 변수가 적게 나타났으며 중급 학습자의 경우는 언어능력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가장 큰 연관성을 보여줬다. 고급 학습자는 초급이나 중급 학습자에 비해 향수병이나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에서는 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이은정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이 경희대학교 국제교육관에 재학중인 유학생으로 국한된다는 점에서 강한 경향성이 있다고 여겨진다. 설문조사를 통한 연구에서는 더 많은 한국어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더 높은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허윤범(2017)은 몽골어 모국어 학습자를 조사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언어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연구한 바가 있다. 허윤범은 설문조사와 심층면접의 방법을 결합해서 연구했다. 설문조사의 전반부에는 한국어 수강반 급수 및 조사대상자에 관한 인구학적 물음이 있었으며 후반부분에는 Sandhu 와 Asrabadi(1994)의 ASSIS 척도를 기반하여 몽골어 유학생의 실태와 맞게 재구성했던 새로운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 척도(32 문항)를 포함시켰다. 그후에 허윤범(2017)은 언어 수준이 다른 사람들이 왜 다양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받는지 더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일부 조사 대상을 심층면접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 SPSS 를 이용한 통계학적 방법과 심층면접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분석한 후 허윤범(2017)은 몽골어 모국어 학습자들은 초급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다가 언어능력이 향상됨에 따라서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고급으로 갈수록 다시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1] 이은정(2009:24)이 재구성했던 한국 문화적응 스트레스 척도는 1)신체적 및 정신적 건강(향수병,두려움)관련 사항 2)언어관련(의사소통의 어려움)사항 3)학습부진 관련 사항 4)문화충격(생활습관,문화양식의 차이)관련 사항 5)대인 관계 관련 사항 6)지각된 차별감 및 미움 관련 사항 총 6 가지 영역으로 분리하되 33 개 문항의 형식으로 재편성되었다.

제시했다. 이 결과는 이은정(2009)의 연구 결과와 다르다는 점에서 허윤범은 이것은 몽골어 모어 학습자들의 특성이라고 주장했다.(2017: 76)

이처럼 필자는 문화적응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봤다. 우선 한국의 외국인 인구에서 중국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유학생들, 특히 중국인들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구 기반이 가장 큰 집단을 연구한 다음 도출된 결론으로 이 집단을 넘어 다른 집단까지 일반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다.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데에 있어 언어능력 및 학업활동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다. 서론에 소개하였듯 한국 정부는 유학생의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대표적으로 한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영어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했다. 영어 학위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학생들은 과연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있어 주로 연구대상으로 여겨졌던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유학생들과 똑같은 양상을 보이는가? 다르다면 어떤 점에서 다를 것인가?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에 관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한국 정부의 유학생 유치나 유학생의 문화적응을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음이 기대된다.

둘째,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에 있어 많은 학자들이 SPSS 와 같은 통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척도 타당화 과정을 거쳤다. 통계 연구의 하위요인들이 조사 상황마다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신뢰도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조사 대상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실태에 대한 유의미한 분석을 내놓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주로 통계학적 방법으로 이뤘던 연구들은 가끔씩 불일치한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 언어능력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는 바로 이 불일치들 중 하나이다. 불일치의 경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이해하기 위하여 질적연구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문화적응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많은 연구는 주로 경희대학교 또한 성균관대학교[1]를 대상으로 진행되어 왔다. 서론에 언급하였듯 서울대 학생들은 2 명중 1 명꼴로 우울증을 겪고 있는데, 이를 통해 서울대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지만 유의미한 수준임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에 관한 문화적응 연구는 그리 많지는 않다.[2]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 서울대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실태를 연구함으로써 극단적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고, 더 많은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을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는 데 유의미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원생을 학위과정과 사용하는 언어별로 분리시켜 이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자세한 연구방법 및 절차는 다음 장에서 다룰

---

1 DBpia 의 통합검색창에서 '문화적응 경희대학교'란 검색어를 치면 이에 관한 논문 수는 127 건으로 나타난다. '문화적응 성균관대학교'란 검색어를 치면 이에 관한 논문 수는 97 건으로 나타난다.(2023 년 5 월 13 일 00 시기준)
DBpia 는 연구자 중심의 한국형 학술정보 포털이다.
교육통계서비스가 제고한 국가별 학교별 외국인 유학생 현황(2013-2021)파일을 참고하면 경희대학교 및 성균관대학교의 유학생 수는 1 순위 및 2 순위를 차지하는 사실을 알 수 있다.(조사 기준일 2021 년 4 월 4 일)
2 DBpia 의 통합검색창에서 '문화적응 서울대학교'란 검색어를 치면 이에 관한 논문 수는 56 건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겨우 성균관대학교 수치의 절반 수준이다. (2023 년 5 월 13 일 00 시기준)
실제 서울대 한 대학원에서 학생상담을 맡고 있는 A 교수는 "서울대 학생이라고 순탄한 삶이 펼쳐질 것이란 생각은 큰 착각"이라며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다 보니 학업 스트레스로 자해를 하거나 자살충동을 호소하는 학생을 여럿 봤다"고 전했다.
출처:김희래. (2018 년 11 월 30 일). [단독] "최고대학 들어왔지만…" 서울대생 절반 우울증세.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society/8580386

제 2 장 연구 방법 및 설계 설명

2.1 연구대상의 선정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의 높은 우울증 비율을 바탕으로 재학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을 조사대상으로 삼아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확률적 표본추출 방법 중 하나인 층화추출법(Stratification)을 선택하였다. 한국에 재학중인 유학생의 대부분의 경우는 한국어를 사용해 학위과정을 밟고 있다. 반면에 영어 학위 프로그램의 수가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영어 학위 프로그램을 수강중인 중국인 학생 수량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층화추출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참고로 서울대학교 현재 개설된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영어 학위 프로그램을 필자는 <표 2-1>과 같이 정리하였다. [1]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들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학교의 학위 과정 구성 비율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자를 추출할 때 2 가지 선정 조건을 하였다.

첫째, 2022 년 4 월 1 일을 기준으로 서울대 재학중인 중국인 석사 과정생은 총 222 명이었으며 박사 과정생은 171 명이었다. [2]따라서 조사대상을 뽑을 때 석사와 박사과정생들을 같은 비율로(석사 과정생: 박사 과정생=222:171≈8:6) 뽑는 것이 현재 서울대학교 재학중인 중국인 유학

---

[1]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 계열의 영어 학위 프로그램만 정리하는 이유는 인문사회과학 계열의 학생들은 주로 한국어를 사용해 학업 활동을 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의 인지이다. 그러나 실제의 경우는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 계열의 학생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어를 아예 못하거나 혹은 약한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유학생들을 종종 찾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학업활동에 있어 주로 영어만 사용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과학, 공학 또한 의학의 경우는 전공 및 학교마다 다르지만 한국어를 못해도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사례들은 흔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여 논문의 장황을 피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따로 정리하지 않는다.

[2] 출처: 2022 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한국교육개발원(KEDI),등록일 2022 년 12 월 22 일.

생의 현황과 부합하다고 판단하여, 석사 과정생 8 명, 박사 과정생 6 명, 즉 총 14 명을 뽑기로 계획하였다.둘째, 학위 프로그램의 사용 언어 차이가 연구의 독립변수이기 때문에 언어별로 동일한 수의 유학생을 뽑으면 자료의 비교 분석에 있어 더 과학적이라고 판단하여 언어별로 유학생은 모두 7(14/2=7)명 뽑기로 택하였다.

<표 2-1>서울대학교 인문사회과학 및 예술 계열 영어 학위 프로그램 정리
(2023 년 5 월 10 일 기준)

소속 대학원	과정명
사범대학원 College of Education	글로벌교육협력전공 Global Education Cooperation Major
행정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ublic	글로벌행정 전공 Global Public Administration
국제대학원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국제통상전공 International Commerce Major
	국제협력전공 International Cooperation Major
	국제개발전공 International Development Major
	국제지역전공 International Area Studies Major
사회과학대학원 College of Social Science	정치학전공[1] Political Science Major
경영전문대학원 Business School	Full-time MBA[2]

[1] 정치학 전공의 경우 정치학과 재학 중인 한 명 박사에게 여쭤보더니 2 개나 3 개의 필수과목만 교수님은 한국어로 강의하고 있지만 이런 수업에서 숙제나 발표할 때 영어로 해도 인정된다고 알려주었다. 그이외는 모든 학업과정에 있어 영어만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2] Full-time MBA 프로그램의 경우 한국어와 영어 트랙은 모두 설치되어 영어만 가능 한 학생들은 전부 영어 커리큘럼 제공가능하다.(참조 SNU Business School 홈페이지)https://gsb.snu.ac.kr/en/program/full-time-mba/overview

표분량을 설정한 후 필자는 위챗(Wechat)[1]를 통해서 서울대학교 중국인 유학생 단체 채팅방에 이번 연구에 관한 모집공고(연구 소개, 연구자 연락처, 사례비에 관한 정보 등 포함)를 올려 연구참여자마다 10,000 원을 사례금으로 드리는 방식으로 모집하기 시작하였다. 그후에 필자는 전에 설정했던 기준과 인원수를 지켜 조사 대상자의 학위과정 사용 언어가 무엇인지 충분히 파악한 뒤 전공 분포가 최대한 다양하다는 전제하에 선착순으로 14 명의 심층면접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단, 한국어에 능한 조선족들은 일반 중국인들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고 판단하여 연구의 신뢰도를 위하여 이번연구에서 제외하였다.

2.2 설문조사 방법

선행연구 부분에 정리했듯이 인구학적 차이도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학적 정보를 수집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구학적인 정보는 이은정(2009), 허윤범(2017)의 연구에 기대 성별, 연령, 소속 과정, 거주기간, 친한 한국인 친구가 몇 명 있는지[2] 또한 월 생활비 6가지로 나누어 수집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어 능력은 문화적

---

[1] 위챗(Wechat) : 중국의 기업 텐센트에서 2011 년 1 월에 내놓은 모바일 메신저. 주로 중국 본토에서 많이 쓰이며, 요즘에는 홍콩, 마카오, 대만 등 기타 중화권 지역들에서도 적지 않게 쓰인다. (출처:나무위키)
https://namu.wiki/w/%EC%9C%84%EC%B1%97

[2] 이은정(2009)의 연구를 따라 사회적인 지지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은정의 주장에 근거하여 지지 부분에서 도우미와의 만난 횟수 또한 시간은 중요한 한 부분이라 본 연구에서 “좋은”이란 수식어를 붙였다. 동시에 설문조사 작성할 때도 연구자의 이해 돕기 위하여 옆에서 “좋은 친구”에 관한 설명을 다시 자세히 하였다.

응 스트레스와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주장이 많으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들의 언어능력 정보[1]도 수집하였다. (장연,2005)(이은정,2009)설문조사의 문항들은 조사대상자들의 다양한 언어능력을 감안,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중국어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본 연구 이전의 유사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중국인 학생들에게 중국어 설문지를 배포하는 전례(이은정,2009)가 있다.

설문조사를 통해 인구학적 정보를 얻기 전에 연구참여대상자들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참여하는 동안 신체나 심리적으로 불편이 생기는 경우 언제든지 이번 연구에 참여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이 연구참여동의서에다가 서명한 후에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이 진행되었다.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중국인 조사대상자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

[1] 언어능력에 관한 정보는 연구창여자가 토픽(TOPIK) 시험을 참여해 본 적이 있을 경우는 토픽 시험에서 취득 등급을 기재하도록 시켰다. 토픽 시험을 한번도 참여해 보지 않는 참여자들에게는 한국에 대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한 적이 있다면 그들에게 어학당 다녔던 언어반의 등급수를 기재하라고 요청했다.
토픽(TOPIK) 시험은 한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주최하는 한국어 능력 판정 시험으로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또한 외국인들을 주요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한국어 학습 방향 제시 및 한국어 보급 확대 위하여 전반적으로 세계범위에서 실시하고 있다. 토픽(TOPIK) 시험은 한국어 사용 능력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내 대학 유학 및 취업 등에 활용하고 있다.(한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홈페이지 참조)

<표2-2> 연구참여자에 관한 인구학적 정보

(심층면접은 2023년 4월13일부터 2023년 4월27일까지 실시하였다)

번호	성별	연령	거주기간	전공	소속과정	한국어 능력	사용하는 언어	친한 한국인 친구 수량	월 생활비
1	여 1	27	1 년~3 년	정치외교학과	박사과정	연세대어학당 1 급	영어	2~3 명	>150 만원
2	남 1	25	1 년~3 년	국제학과	박사과정	토픽 3 급	영어	≥4 명	50~100 만원
3	여 2	24	1 년~3 년	국제통상	석사과정	서울대어학당 3 급	영어	없음	>150 만원
4	남 2	23	1 년~3 년	국제협력	석사과정	서울대어학당 2 급	영어	1 명	50~100 만원
5	여 3	32	1 년~3 년	약학과	박사과정	서울대어학당 2 급	영어	2~3 명	50~100 만원
6	남 3	27	1 년~3 년	대기과학과	박사과정	배운 적이 없음	영어	없음	100~150 만원
7	여 4	23	6 개월~1 년	경영학과 MBA	석사과정	토픽 3 급	영어	≥4 명	>150 만원
8	여 5	24	6 개월~1 년	지리학과	석사과정	토픽 6 급	한국어	≥4 명	>150 만원
9	여 6	23	1 년~3 년	상법과	석사과정	토픽 6 급	한국어	없음	50~100 만원
10	여 7	23	6 개월~1 년	글로벌스포츠매니지먼트과	석사과정	토픽 5 급	한국어	≥4 명	100~150 만원
11	남 4	24	3 년 이상	건축학과	석사과정	토픽 6 급	한국어	없음	100~150 만원
12	남 5	25	1 년~3 년	사회과학과	박사과정	서울대어학당 4 급	한국어	≥4 명	>150 만원
13	여 8	27	1 년~3 년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토픽 6 급	한국어	2~3 명	>150 만원
14	여 9	26	1 년~3 년	국어교육과	석사과정	토픽 6 급	한국어	2~3 명	50~100 만원

2.3 질적 연구 방법-심층면접

본 연구는 영어 학위 프로그램과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차이의 이유를 심도 있게 탐구하기 위해 주로 질적 연구 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접을 택하였다. 심층면접을 선택해 질적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능력과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상관관계 양상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 언어능력이 좋아야 한국에 생활하는 데에 있어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적게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는 반면, 유학생의 한국어가 좋아질수록 지켜야 하는 규율이 똑같이 늘어난다고 주장하며 이로 인한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적지 않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Arushanyan Mariam,2019) SPSS를 이용한 자료 분석은 광범위한 수의 조사대상의 대략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 분포를 획득할 수 있으나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있어 파악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달리 심층면접을 통한 질적 연구는 조사대상의 말, 동작과 표정까지 포착하며 양적 연구의 “얕고”(shallow) 많은 수치보다 풍성한(rich) 데이터와 상세한 묘사(thick description)를 이용해 소수 집단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Tolich&Davidson,2020)

둘째, 양적 연구는 연구 결과의 일반화하기 위해 합의 또는 일반적인 패턴을 추구하므로 응답의 다양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질적 연구는 패턴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 동시에 (tends to seek) 데이터의 차이와 불일치에 대한 수용성이 더 좋으며 사회의 일부 소수 집단을 더 잘 대표할 수 있다. (Tolich&Davidson,2020)

셋째, 심층면접은 주로 많은 탐구적 연구에 쓰이며, 개개인의 경험과 견해를 활용한 질적 방법론 중 하나이다. 특히 조사대상자들이 연구주제에 관해 많은 실제 경험이 있을 경우 풍부하고 상세한 데이터를 창출한 확률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Braun&Clarke,2013:81) 그 외에도 소외

단체 또한 취약계층에 접근할 때 심층면접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란 주장도 있다. (Braun&Clarke,2013:80) 본 논문의 조상대상자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중국인 대학원생이며 본 논문의 종속변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양상이다. 따라서 심층면접을 통해서 이들의 경험을 최대한 발화시킬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더군다나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심리학의 한 분야라 문화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유학생들은 우울증, 혹은 다른 정신질환까지 걸릴 가능성이 높다. Braun과 Clarke의 주장을 반영하였을 때 유학생 집단, 특히 영어 학위 프로그램 유학생들의 경우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수보다 적기 때문에 진지한 견해나 생각을 파악하는데 있어 심층면접이 본 연구에서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2.4 반구조화[1] 질문의 작성 및 심층면접의 실행

심층면접 하기 전에 인터뷰 가이드(Interview Guide)가 미리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심층면접 중에 연구자가 큰 방향을 잃지 않고, 연구 질문의 답을 찾는 도중에 있어 풍부하고 상세한 정보를 더 쉽게 수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 가이드(Interview Guide)를 작성하는 데에 있어 스스로 질문을 열거하는 것도 필요한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일한 주제의 선행연구들로부터 질문을 빌려 만드는 것도 효율적이다.(Braun&Clarke,2013: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혜림(2015)이 "중국어 모어 학습자와 영어 모어 학습자의 한국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어 숙달도의 관계 연구"를 진행한 바에 기초하여 반구조화질문을 만들어서 인터뷰 가이드(Interview Guide)를 준비하였다. 연구에서 주혜림(2015)은 한국에 있는 유학생활과 미국에 있는 유학생활은 다르다고 생각해서 Sandhu(1994)의 ASSIS 척도를 재수정하였다. Sandhu(1994)의 ASSIS 척도는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1] 반구조화된 인터뷰는 연구자가 인터뷰의 방향을 어느 쪽으로 진행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얻어낼 것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지만 인터뷰에 임할 때 자세하게 질문을 미리 준비하진 않는다. 질문보다는 화제(topic)가 인터뷰의 방향을 결정한다(김경석, 1996:214).

<표 2-3> Sandhu(1994)개발한 영어버전 ASSIS 척도

3. I am treated differently in social situations.	Perceived Discrimination Items
9. Others are biased toward me.	
11. Many opportunities are denied to me.	
14. I feel that I receive unequal treatment.	
17. I am denied what I deserve.	
23. I feel that my people are discriminated against.	
26. I am treated differently because of my race.	
29. I am treated differently because of my color.	
1. Homesickness bothers me.	Homesickness Items
6. I feel sad living in unfamiliar surroundings.	
21. I miss the people and country of my origin.	
35. I feel sad leaving my relatives behind.	
4. Others are sarcastic toward my cultural values.	Perceived Hate Items
15. People show hatred toward me nonverbally.	
20. Others don't appreciate my cultural values.	
24. People show hatred toward me through actions.	
33. People show hatred toward me verbally.	
7. I fear for my personal safety because of my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	Fear Items
18. I frequently relocate for fear of others.	
27. I feel insecure here.	
31. I generally keep a low profile due to fear.	
2. I feel uncomfortable to adjust to new foods.	Stress Due to Change/Culture Shock Items
13. Multiple pressures are placed upon me after migration.	
22. I feel uncomfortable to adjust to new cultural values.	
10. I feel guilty to leave my family and friends behind.	Guilt
34. I feel guilty that I am living a different lifestyle here.	
5. I feel nervous to communicate in English.*	Miscellaneous
8. I feel intimidated to participate in social activities.*	
12. I feel angry that my people are considered inferior here.*	
16. It hurts when people don't understand my cultural values.*	
19. I feel low because of my cultural background.*	
25. I feel that my status in this society is low due to my cultural background.*	
28. I don't feel a sense of belonging (community) here.*	
30. I feel sad to consider my people's problems.*	
32. I feel some people don't associate with me because of my ethnicity.*	
36. I worry about my future for not being able to decide whether to stay here or to go back.*	

*'Please note that these items contributed to unexplained variance and could not be grouped under any one specific factor.

주혜림의 연구에서 조사대상은 중국어 모어 학습자와 영어 모어 학습자로 설정했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정확한 측정을 위하여 중국어 모어 학습자 집단 및 영어 모어 학습자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서 원활한 의견 청취 및 연구대상의 실태를 잘 반영할 수 있도록 ASSIS 척도의 문항들을 수정하였다. 주혜림(2015)은 첫째, 1차적으로 ASSIS 척도에서 연구 대상과 맞지 않는 단어를 수정하였다. 둘째, 국내에서 1 년이상 거주한 6 명의 중국어 모어 거주자들을 모집한 후 1 차 수정안을 이용해 면접을 실행하였다. 그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질문들을 선별하면서 한국에서 생활하는 동안 나타나는 일반적인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도식화로 표현하면 <표 2-4>과 같은 과정을 거쳤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인 반구조화질문은 <표 2-5>과 같다.

<표 2-4> 주혜림(2015)중국인 연구참여자 위하여 ASSIS 척도 재구성

문항	조작
5. I feel nervous to communicate in English. 나는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	5. “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로 변경
26. I am treated differently because of my race. 나는 나의 인종 때문에 다르게 취급 받는다.	중국인 면접참여자들은 공감되지 않으므로 삭제
29. I am treated differently because of my color. 나는 나의 피부색 때문에 다르게 취급 받는다.	
18. I frequently relocate for fear of others. 나는 빈번하게 다른 사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동한다.	
24. People show hatred toward me through actions.사람들이 행동으로 나에 대한 증오를 보인다.	
27. I feel insecure here. 나는 이곳에서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	
17. I am denied what I deserve. 나는 마땅히 받아야 할 대접을 받지 못한다.	유사문항 (14)이 존재이므로 삭제
인지된 차별로 인하여“대중교통을 꺼린다”	중국인 면접참여자들의 의견을 따라 추가하게 됨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모국으로 돌아가길 희망한다”.	

<표 2-5>재구성한 ASSIS 척도에 기초한 반구조화질문

영역	문항
인지된 차별	3 번 사회적 상황에서 나는 다르게 취급 받는다.
	9 번 다른 사람들은 나에게 선입견이 있다
	11 번 나는 많은 기회를 놓치고 있다.
	14 번 나는 동등하지 않은 대접을 받는다.
	23 번 우리 민족(국가)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낀다.
향수병	1 번 향수병 때문에 괴롭다.
	6 번 나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살아서 슬프다.
	21 번 나는 내 출신 지역의 사람들이 그립다.
	35 번 나는 나의 친인척을 남겨두고 떠나온 것이 슬프다.
인지된 증오	4 번 다른 사람들은 나의 문화가치에 냉소적이다.
	15 번 사람들은 비-언어적 방법으로 나에게 증오를 보인다.
	20 번 다른 사람들은 나의 문화적 가치를 잘 모른다.
	33 번 사람들은 언어적으로 나에게 증오를 보인다.
두려움	7 번 나는 내가 가진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개인 안전에 두려움을 느낀다.
	31 번 두려움 때문에 일반적으로 눈에 뛰지 않게 행동한다.
변화/문화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	2 번 나는 새로운 음식에 적응하느라 힘들다.
	13 번 입국 후 다양한 압박을 느낀다.
	22 번 나는 새로운 문화적 가치에 적응하느라 힘들다.
죄책감	10 번 나는 가족과 친구들을 두고 온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34 번 나는 이곳에서 다른 삶의 양식을 갖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다.
기타*	5 번 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
	8 번 나는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두렵다.
	12 번 나는 이곳에서 우리 민족(나라) 사람들이 열등하게 취급 받는 것에 화가 난다.
	16 번 사람들이 나의 문화적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상처 받는다.
	19 번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자존감이 낮다.
	25 번 나는 나의 문화적 배경 때문에 이 사회에서 위치가 낮다.
	28 번 나는 이곳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한다.
	30 번 나는 한국에서 우리 민족(국가) 사람들의 문제를 생각하면 슬프다.
	32 번 나의 인종 때문에 몇몇 사람이 나와 연합하지 않음을 느낀다.
	36 번 나는 미래에 집에 돌아가지 못할까 두렵다.
	추가 1: 나는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싶지 않다.
	추가 2: 나는 고향으로 조만간 돌아가고 싶다.

*추가 문항의 경우 분류가 모호함으로 기타에 포함한다.

심층면접에서 중요한 점은 연구자가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동시에 면접 대상자와의 상호 신뢰 및 원활한 상호작용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떻게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던지는지가 중요하며 한가지 중요한 점은 너무 직접적이고 유도적인 질문을 던져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Braun&Clarke,2013:84) 따라서 본 연구자는 10-20 분정도의 주제와 관계없는 가벼운 일상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주제와 관련된 심도 있는 질문과 민감한 질문까지 자연스럽게 이끌어가고자 노력하였다. 동시에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 척도에 관한 질문은 주로 부정적이고 무거운 질문들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지지 않도록 긍정적인 질문들도 포함시키고자 하였다. 다음은 심층면접에 분위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시 질문들이다.

<표 2-6>분위기를 조절하기 위하여 사용한 예시 질문

①어떻게 한국까지 유학 왔어요?
②한국에 와서 무엇일 제일 좋았어요?
③고민이 있을 때 보통 어떻게 해결해요?
④한국에 와서 어느 순간 가장 행복했어요? 왜요?
⑤한국에 와서 어느 순간 가장 힘들었어요? 왜요?
⑥한국의 음식 중 뭐가 가장 맛있다고 생각해요?

심층면접은 2023 년 4 월 13 일부터 2013 년 4 월 27 일까지 약 2 주간 거쳐 1 대 1 로 진행하였다. 심층면접은 최대한 대면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하였으나 4 명의 연구대상자는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영상통화를 이용해

서 진행하였다.[1]다른 10 명의 경우는 주로 연구대상자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내의 시끄럽지 않은 카페나 연구참여자가 위치해 있는 대학원의 빈 강의실에 연구자가 직접 찾아가서 면접을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연구참여동의서를 보여주며 이번 면접은 연구를 하기 위하여 소형녹음설비를 통해 녹음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면접 언어는 연구참여자의 다양한 언어능력을 감안하여 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모어인 중국어를 택하였다. 면접의 계획 소요 시간은 1 시간이었으며 연구자는 질문에 대하여 면접자가 자유롭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얘기가 다 끝난 것 같다고 느끼거나 면접 대상자가 계속 반복적인 말을 해 새로운 정보를 추출할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심층면접을 종료 시켰다. 종료하기 전에 다시 한번 면접대상자에게 보충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혹은 연구자의 면접에 대한 의견이나 코멘트가 있는지를 여쭤봤다. 이를 다음의 심층면접에 반영하여 개선하고자 함이다. 심층면접에서 중요한 점이 생기면 필기도 병행하였다. 최종 심층면접의 소요 시간 대상자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짧게는 37 분, 길게는 1 시간 40 분이었다.

2.5 자료처리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위 프로그램 언어 종류별로 수행하는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을 탐구하기 위하여 주제 분석 방법(Thematic Analysis)을 채택할 것이다. 주제 분석법은 사회과학 분야에서 흔히 찾을 수 있다는 질적 연구 결과 분석 방법 중 하나이다. 주제 분석법의 한 가지 강력한 장점은 융통성이며, 거의 모든 종류의 데이터를 분석 및 정

[1] 4 명 학생 중에서 1 명은 코로나 19 가 걸렸기 때문에 오프라인식으로 심층면접을 할 수가 없어 되어 버리고 3 명은 당시 서울에 없어서 연구참여대상들의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 영상통화를 택하였다.

리하는 데에 이용될 수 있고, 모든 종류의 연구 문제에 답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어학 연습에 관한 문제만 제외) (Braun&Clarke, 2013:178) 주제 분석법에 따라 첫째, 녹음된 심층면접 내용을 일차 전사하고 그후에 다시 녹음된 내용을 들으면서 누락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수정해야 한다. 둘째, 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익히면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노출된 경우 그들의 개인정보를 삭제하고 조사대상자별로 파일을 정리하며 데이터 분석의 편의 위해 파일마다 조사대상자의 사례 번호를 붙여야 한다. 그후에 데이터를 코딩(Coding) 작업을 실시하여 그들을 영역별로 개념과 범주로 유목화할 것이다. (Patton,2002)

그러나 본 연구 속에 이용했던 인터뷰가이드(Interview Guide)는 총 7가지 영역 포함되고, 마지막 영역은'기타'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참여자의 문화적응 양상을 비교 해석할 때 혼란을 일으킬 수 도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자료를 처리할 때는 영역 범주 설정을 되도록 적게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과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을 비교할 때 더욱 또렷한 중점과 특성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연(2005), 이관식(2011) 및 趙晨薇(2020)의 중국인 학생의 문화적응 양상에 관한 연구를 바탕으로, 주혜림(2015)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재구성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빌려 '언어능력','대인관계', '향수병' 및 '문화차이' 4 대영역으로 나누어 두 집단의 학생의 문화적응 양상을 비교 해석할 것이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장연(2005)및 이관식(2011)은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그들의 문화적응 스트레스를 측정할 때 설문 조사 결과를 '대인관계', '생활습관','학업활동', '향수병' 등의 영역으로 분류하여 지역 유학생의 문화적응에 대한 각 영역별 스트레스 정도를 분석한다. 제 1 장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측정 척도 타당화에 관한 부분에서도 정리했듯이 많은 문화적응 스

트레스를 측정해야 되는 연구들은 Sandhu(1994)가 개발한 ASSIS 척도를 재구성하고 사용해 왔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결과 및 연구 질문의 답을 찾는 데에 있어 연구 주제와 더 부합하도록 각자 특성이 있는 다양한 측정 도구를 개발하였다. 趙晨薇(2020)가 언어불안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하여 의사소통의 어려움, 문화충격, 향수병과 한국어 학습 총 4 가지 영역으로 재구성한 문화적응 스트레스 측정 척도는 한가지 좋은 예이다. 본 연구 속에 참여하는 2 집단이 가지는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언어 프로그램의 사용 언어의 차이다. 언어장벽이 문화적응에 있어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은 많은 연구들로 입증되었으나 (김지혜,2019)(赵晨薇, 2020) (李喆永, 2019) 언어의 숙달도 및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는 불일치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장연,2005)(이은정,2009)(허윤범,2017) (Arushanyan Mariam,2019) 따라서 5 번 문항[1]을 통해서 연구 참여자들에게 그들의 언어능력으로 인한 스트레스 양상을 질문하여 파악하고 두 집단간의 사용하게 된 언어 차이로 스트레스의 형성 원인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데 큰 기여가 될 것이라고 판단해서 이 영역을 설정하였다.

둘째, 중국 유학생들의 한국문화 적응 연구들에 따르면 중국 유학생들이 여러 영역에서 어려움들을 체험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대인관계 형성의 어려움이 심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었다는 지적을 흔히 찾을 수 있다. (허춘영, 1998) 이중에서 편견, 차별 및 증오, 두려움 등 요소는 중국 유학생의 대인관계 경험에 있어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林娜, 2012) 따라서 반구조화질문을 이용하여 영어 학위 프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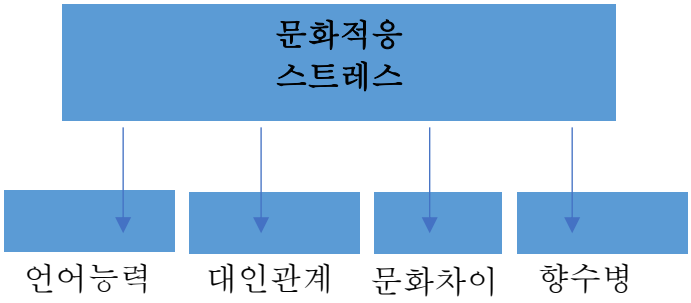
[1] 5 번 문항: 나는 한국어로 의사소통하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

램 학생과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대인관계 양상을 파악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장연(2005)과 이관식(2011)의 연구에 근거해 이 영역을 설정하였다.

마지막으로는 '향수병'과 '문화차이'의 2가지 영역의 설정이다. 선행연구에서 살펴보았듯이 유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 만난다면 문화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하며, 문화적 차이를 느끼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Oberg, 1960) 특히 대부분의 유학생의 경우 가족과 친구들을 떠나 혼자서 유학을 가기 때문에 고향이나 가족을 그리워하는 감정이 존재한다. '향수병'과 '문화차이'는 이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현상으로 인식하여 본 연구에서도 재구성한 반구조화질문을 빌려 사용하여 이 영역을 탐구할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분석 단계를 소개하자면 첫째, 녹음내용을 전사하고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익힌다. 둘째, 주제분석법을 이용해 코딩(Coding) 작업을 실시하여 설정했던 4대 영역 틀 속에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과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을 파악할 것이다. 그 후, 전체 공통적으로 또한 특이적으로 드러나는 영역들을 횡적인 비교분석을 할 것이다. 연구 모형이 도식화로 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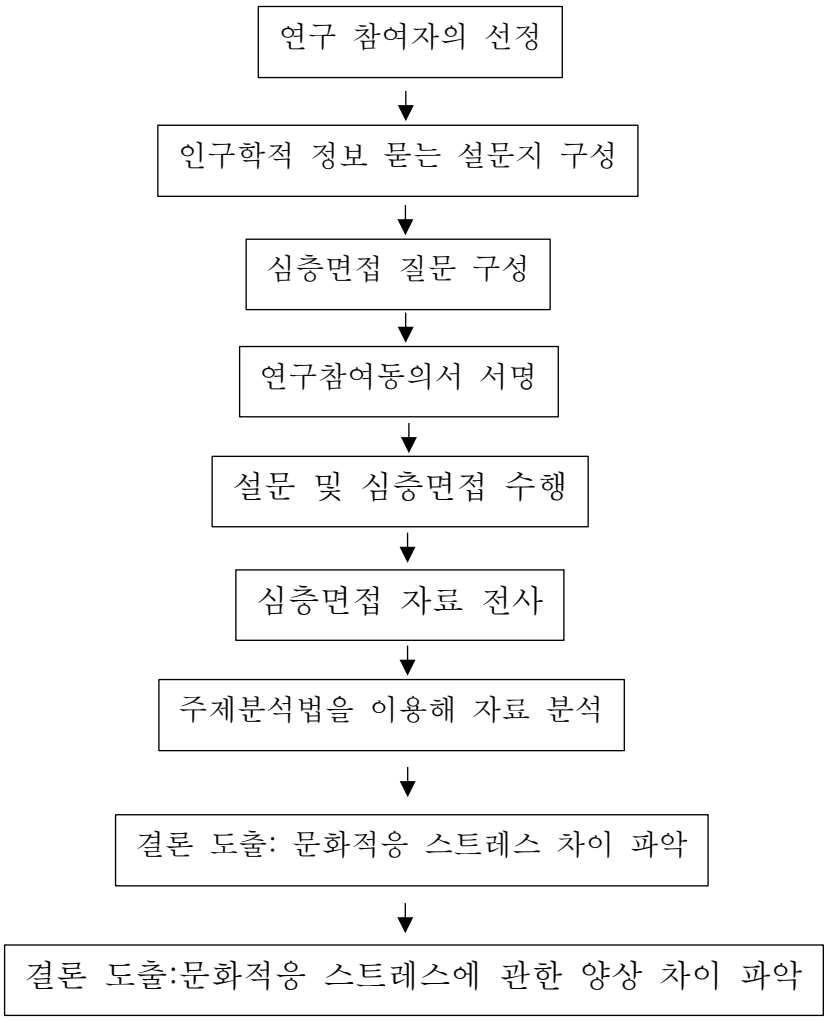
<그림 2-1> 연구 모형의 식각화



2.6 연구 절차 도식화

이와 같이 연구절차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 및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양상은 제 3 장 및 제 4 장에서 살펴볼 예정이다.

<그림 2-2> 연구 절차 도식화



제 3 장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문화적응 실태

3.1 언어능력

연구참여에 응한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의 경우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한 명의 유학생만이 서울대 어학당 4 급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그 외에는 모두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학업과 일상생활에서 한국어를 주로 사용하며 유학 생활을 지속해왔다. 이들의 심층면접 결과 언어 능력 영역에서 정확한 의사 및 감정 전달의 실수로 인한 스트레스, 정확하지 않은 이해의 스트레스, 현지인과 언어능력 차이로 이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의 요인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혀졌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1]K4-11
> 저는 어떤 어미로 대화를 끝내야 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아요. (연구자: 혹시 '-아요/어요' 문법과 '-ㅂ니다

---

[1]본 기호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다. [응답자 구분 번호-주제번호] 응답자 구분 번호는 심층면접 참여자에게 부여된 식별번호이다. 제 2 장의 연구 방법 및 연구 설계 설명 부분에서 연구참여자의 다양성 또한 진실성 및 대표성을 독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한국의 거주 기간 또한 전공까지 모두 포함시켜서 표로 정리해 두었다. 그러나 중국인 유학생의 수량이 유학생이란 큰 집단에서 가장 큰(조사 기준일 2021.4.1) 비율을 차지해도 한 학교만 선정해 조사할 경우 특히 학과 및 전공, 영어 학위 프로그램 또한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까지 세분화돼 있기 때문에 일부 유학생의 신분 혹시나 식별될까 봐 다시 섞어서 새로운 번호 부여 작업을 거쳤다. 따라서 14 명의 연구참여자들에게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경우 English 의 첫 알파벳으로 지칭하였으며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Korean 의 첫 알파벳으로 지칭하였다. 참여자번호는 <표 2-2>의 번호와 달리 연구참여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시 무작위로 새로운 번호를 부여 하였다. 따라서 최종 연구참여자들의 번호는 E1, E2, E3, E4, E5, E6, E7 및 K1, K2, K3, K4, K5, K6, K7 이다.

/습니다'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아니예요. 이런 것이 쉽지만 가끔 제가 표현하고 싶은 감정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든요', '더라고요', '네요', '기는요' 등 한국인들이 자주 사용하고 있는 어미들이 있어요. 감탄이라든지 가벼운 반박이라든지 새로 알게 된 걸 자랑하고 싶을 때 되게 쉬운 문법인에도 불구하고 제 감정을 잘못 표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과 의사소통 할 때 좀 불안해요.

K4 의 발화[1]에서 보이 듯이 K4 는 한국어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어떤 어미를 사용해야 되는지에 있어 많은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어미 사용으로 인한 어려움은 역시 많은 한국 학자들도 인식하고 있다. 박지연(2016)은 어미, 특히 종결 어미는 주로 구어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에 살리는 억양에 따라서 다양한 감정 표현도 실현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어와 한국어는 어순, 문법, 화법 등에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중국인들은 한국어의 어미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동시에 언어는 감정 전달의 한 도구로서 특히 한국어의 경우 종결어미는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등 선명한 감정을 담는 문장을 만드는 데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때문에 외국인 한국어 학습자가 발화할 때 자신의 의사를 잘못 표현해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에 대한 걱정은 이유가 충분하다. 존댓말의 사용도 중국어와 한국어의 사용상 한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존댓말을 잘못 사용하여 예의가 없는 학생으로 인식되는 것에 대한 걱정으로, K6 학생은 교수와 대화할 때 필요한 내용만 전달한 후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는 전략을 취해 왔다.

[2]K6-1

저희 전공의 경우 강제적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학생들은 일이 없으면 연구실에 매일 있을 거예요. 한동안 제가 너무 바빠서 몇일 동안 연구실에 못 갔다가 어느 날에 교수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어요. 교수님은 농담으로 '오랜만이야' 먼저 인사해 주셨어요. 왠 한동안 연구실에 없는 원인을 교수님께 설명해 드리고자 하였는데 존댓말 때문에 교수님께 말을 실수할까 봐 본능적으로 '죄송합니다'만 입에 튀어나왔어요.

한국은 중국과 같은 유교 문화권에 속하지만 존댓말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있다. 중국어 존댓말은 주로 어휘에 있어서 많은 양의 경겸사(敬謙詞)로 표현되는 반면, 한국어의 경우는 존댓말은 표현방식이 비교적 독특하여 어휘 수단 외에 풍부한 격조사와 어미로도 표현할 수 있다. 동시에 한국의 존대법도 주체 존대, 객체 존대 그리고 상대 존대 세 가지가 있다. 이런 존대법의 잘못된 사용 현상은 한국인까지 일상생활 속에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성기조, 2012)1 K6 는 유학생이란 신분이지만 한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인과 같은 아시아 인종으로 서양인에 비해 이방인이란 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잘못을 용서해주는 한계도 좁아진다고 말했다. 이와 비슷하게 K2 학생은 한국어 고급 수준이지만 여전히 한국어 단어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고

---

[1] 주체 존대는 문장의 주체를 높이는 말로 "아버지께서 오신다"같은 말이고 객채 존대는 문장의 목적이나 처소격 조사가 붙은 부사어를 높이는 말로 "이 물건은 아버지께 갖다 드려다"와 같은 문장이며 상대 존대는 대화 상대를 높이는 말로 "별인 없으십니까" 같은 말이라고 성기조(2012)는 연구에서 예를 집어 해석한 바가 있다.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모르는 한국인이 자신의 말을 기다릴 때 스트레스가 느껴진다고 진술하였다.

[3]K2-1
제 한국어 실력은 사실 이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가끔 하고싶은 말이 갑자기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는데, 그들이 또 제 말 마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때 저는 항상 불안해요.

정확한 의사 및 감정 전달 뿐만 아니라 정확하지 않은 이해 때문에 몇 명의 학생들도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토로하였다.

[4]K3-1
전에 조별 과제를 했을 때, 우리 팀에는 박사 선배님 한 명이 있었는데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학생이고 미국까지 가서 학회 발표 많이 하셨던 훌륭한 분이었어요. 조별 과제가 시작되기 전에, 그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지도했고, 저도 그의 지도를 따라 했어요. 하지만 이해력 문제 때문인지 그런가 제가 수집한 자료들은 선배님은 전혀 쓰지 않았어요…그러다가 며칠이 지나가 제 동기들부터 우리 전공의 어떤 후배가 선배의 말을 듣지 않고 혼자 발표만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5] K2-1
학교에서 행사를 할 때 저 혼자서는 사실 못 갈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

을 때 한국인 학생들은 열정적으로 그들의 행사를 소개해 줬지만, 그들이 말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해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도 모르니까요

발화[4]에 보이 듯이 K3 은 한국어의 사용에 큰 문제가 없기에 한국인들과 주로 한국어를 사용해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언어 이해의 부족으로 일부러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쳤다는 오해를 받는 일이 있었다. 발화[5]에 K2 는 학교 행사가 있을 때 한국인 학생 빠른 발화 속도로 인해 이해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들의 열정에 감사하는 동시에 본인이 응답을 해야함을 느끼지만, 정작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해 미안한다는 느낌만 들었다고 말했다.

마지막 부분은 현지인과 언어능력 차이로 이한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주화된 발화들이다.

[6]K3-1:
제가 그때 조별과제를 해야 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숙제는 제가 전혀 접해본 적이 없는 영역이었어요. 그때 저랑 같은 조에 짜게 되는 학생들은 석사과정 학생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은 중국 조선족 학생이고 한 명은 한국인 석사과정 학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두 명도 완전 공부 열심히 하는 분이에요. 당시 그들의 현지인(처럼) 언어능력으로 제가 팀의 민폐가 될까 봐 많이 걱정했어요.(중략)

발화자 K3 는 조별과제를 할 때 자신이 한국인 또는 중국 조선족 학생에 비해 갖지 못한 언어능력으로 조원들에게 방해될까 봐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이런 상황은 일상 생활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현상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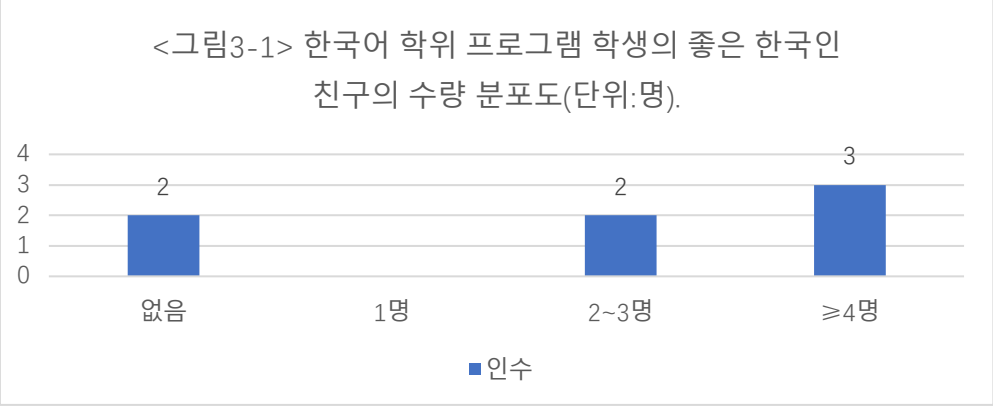
이다. 이는 김현진과 김영주(2015)가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사용 능력과 학교 적응의 양상 연구에서도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김현진과 김영주(2015)의 연구에서 외국인들은 한국인들과 같이 조별활동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외국인들끼리의 조별활동을 더 선호한다고 언급한다. 다른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도 한국인들과 같이 수업을 들을 때 언어능력의 차이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을까 봐 걱정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7]K2-1:
> 어떤 수업의 성적은 발표의 좋고 나쁨에 따라 점수가 달라져요. 이럴 때 저는 발표 때 서툰 한국어 말하기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높은 학점을 잃을까 봐 걱정이 있어요.

다음 절에서는 대인관계 영역에 있어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적응 실태를 살펴볼 것이다.

3.2 대인관계

우선, 대인관계에 있어 친한 한국인 친구의 수를 물어본 결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그림3-1>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좋은 한국인 친구의 수량 분포도(단위:명).

이 부분에서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편견으로 대인관계의 형성에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발견했다.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으며, 유학 생활을 시작할 때 능동적으로 한국인들에게 다가갔다가 냉담 및 무관심을 느끼고 점점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열정이 떨어지는 양상을 발견했다. 그리고 심층면접을 통해서 편견을 높이는 데 대중매체가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혀졌다. 자세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8] K2-2

대학교 1 학년 다녔을 때 저 학교 음악 동아리에 참여했어요. 동아리 선배님이 저에게 우리 학교에 전부 중국인으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다고 말했지만, 저는 매우 다르고 조용하다고 하였으며 칭찬해 줬어요. (중략) 저 지금 대학원생이 되어 선배님들은 다 한국인들이

거든요. 그들이 뭔가 중국에 관련된 음식을 먹을 때 또는 질문이 생길 때마다 자주 저에게 물어봐요. 예를 들어…마라탕을 먹을 때 저에게 중국의 마라탕의 맛도 이것과 같냐고…그들은 중국의 것에 대해 궁금한 것 같기도 하고… 저는 마치 자 같아요…가끔 저에게 와서 그들이 인지하고 있는 중국에 관한 것 진짜인지 가짜인지 검증해 봐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지각할 때 먼저 그들이 속한 집단을 지각하게 되고 이에 의거하여 그들에 대한 인상을 형성하고 주요 판단을 하게 된다. 이러한 선행 지식(고정관념 Stereotype)은 모르는 사물이나 인물을 접하게 할 때 복잡한 정보처리를 빠르게 쉽게 하도록 도와주는 반면 오류와 편파도 일어날 수 있다.(김혜숙,1999) K2 는 연구실에서 선배님들과 완전 화목하게 지내고 오며 선배님들도 잘 챙겨 주신다고 알려줬다. 중국에 관한 궁금증을 자신에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도 연구자에게 공유하였다. 이를 통해서 한국인들은 중국에 대해 아는 것이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부정적인 고정관념을 이용하여 지각자의 신념보다 감정이 주로 영향을 미칠 때 편견이(Prejudice) 생길 수 밖에 없다. (김혜숙,1999) 이에 관하여 K1 는 자신이 받았던 편견의 경험을 연구자에게 공유하였다.

[9] K1-2

어느 날에 선배님은 연구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고 있었는데 저는 “연구실에서 전자담배 피우지 마라”라고 말을 했어요. 옆에 있던 다른 선배님은 “중국은 다 그렇지 않냐”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에서는 연구실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은 금기시되는 일인데 K1 가 선배님의 부정 행위를 지적한 후 다른 선배님께 오히려“중국은 다 그렇지 않냐”란 질문을 받았다고 알려주었다. 한국에서는 지정 장소에서만 흡연이 가능하다는 법규와 달리, 중국은 실내 금연은 강제로 하고 있지 않아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정부는 실내 흡연 금지 정책을 강화해왔다. 도시와 지역에 따라 흡연 정책이 상이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공공 장소와 실내에서의 흡연이 제한되고 있다. 한국인은 중국에 대해 제한적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중국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있다. 주혜림(2015)은 중국인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통해서 한국에 대해 이미지를 형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인도 중국에 관한 정보는 실제 중국으로 가서 수집하는 것보다 국내에서 방영된 중국인과 연관된 뉴스나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지적하였다. 대중 매체를 통해서 한국인은 중국에 관한 접하기 어려운 정보까지 획득하며, 중국 유학생도 이를 통해 한국에서 소통과 사회적 담론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중 매체는 국가의 차원에서 보면 한 정치 수단으로 사용기도 하여 이상적인 중립적인 대중 매체를 찾는 것은 어렵다. 특히 이주자의 경우 타지에서 살다 보니 대중 매체를 이용해 한국 문화를 습득하면서도 미디어 속에 투영된 모국의 모습들을 “국가대표”란 의식 속 자신과 연결시켜 부정적인 보도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임지혜·최정화, 2019) (林娜,2012)

이런 관점에 대해 K3 및 K7 도 역시 언급하였다.

[10] K3-2

제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해서 그때 “사랑의 불시착”1을 봤거든요. 어떤 조선족 깡패 두목이 여주인공을 납치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저 깡패 말투가 중국동포가 아닌데…아무래 들어도 중국어를 배워본 적이 없는 한국인 배우를 몇 명 찾아 그들에게 중국 대사를 한국식 발음으로 가르쳤으며 드라마를 촬영했어요. (중략) 왜 굳이 그런가요?

K3 은 드라마 속에 납치범이 중국 동포라는 설정에 불만을 토로하였다. K3 은 주변의 한 명 조선족 친구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 친구는 중국 조선족의 신분이기 때문에 외국인 등록증은 일반 중국인의 등록증과는 다르게 생겼다고 소개해 줬다. [2]그러나 그 친구는 신분증 검사가 필요할 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는 이야기를 나눠 줬다. 한국인들이 조선족에 대해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K3 은 조선족 납치범의 장면을 접한 후 친구의 실제 상황을 연결시켜 불만을 표시했다. 조선족은 언어 및 문화의 친근감을 바탕으로 한국까지 이주하는 경우들이 많다. 조선족은 한국 내 중국 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된다. 신혜영(2011)의 연구에 따르면 미디어가 사람들의 사고나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이로 인해 대중매체에서 개인이 맡은 역할이 개인의 모습으로 인식되지 않

---

[1] ‘사랑의 불시착’은 2019 년 12 월 14 일부터 2020 년 2 월 16 일까지 tvN 에서 방영된 드라마이다. 이는 어느 날 돌풍과 함께 패러글라이딩 사고로 북한에 불시착한 재벌 상속녀 윤세리와 그녀를 숨기고 지키다 사랑하게 되는 특급 장교 리정혁의 절대 극비 러브스토리를 그린 드라마이다.

2 K3 의 조선족 친구는 한국의 재외 동포의 신분으로 F4 란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F4 란 외국인 등록증은 일반 중국인 유학생의 등록증과는 생김새가 달라 노란색 배경으로 구성되는 반면 일반 중국인 유학생의 등록증은 파란색 배경으로 구성된다.

고 그 개인이 속하는 집단의 일반적인 이미지로 고착되고 있다. 이런 편견의 부각 행위는 이주민들로 하여금 자존감을 잃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 방안의 계획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신혜영, 2011)

한국어에 능통한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 두 명은 좋은 한국인 친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두 명에게 물어봤더니 이런 대답을 얻게 되었다.

> [11] K5-2
> 저는 반 친구들이 있지만, 그들은 저의 좋은 친구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교류는 대부분 공부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개인적인 생활 화제는 다루지 않아요.
> [12] K2-2
> 저 중국인 여자 친구가 있기 때문에 또한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라 한국인들과 잘 안 놀아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K5 는 한국인과의 일상 대화는 학업에만 그친다고 말했으며 개인적인 생활 화제까지 다루어야 서로 친구처럼 친해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K5 는 막 유학 생활을 시작했을 때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이런 생각이 사라졌다. K2 는 자신이 내성적인 성격이며 여자 친구도 있기 때문에 점점 한국인과 분리된다고 말했다. 이를 비추어 보아 개인의 성격도 한국인 친구 사귀기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알 수 있다. 반면에, 본 연구자는 다른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좋은 한국인 친구의 수가 적지 않은 점을 발견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였다.

[13] K3-2

저 한국인 친구 두 명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교에 있었을 때 그 두 명 한국 학생이 우리학교에 교환하러 왔어요. 또 한 명은 제 학부 때 경희대학교로 교환학생으로 갔을 때 사귀게 된 친구예요. 그때 학업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서 친구 사귀기가 그리 어렵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박사과정 들어다 보니 한국인과 예기할 때 주로 학술적인 예기만 많이 하고…(중략) 제가 1 학기 때는 우리 학과 친구들과 친해지려고 해서 중국에서 맛있는 과자를 사서 택배로 한국까지 보내 그들과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저런 질문도 주동적으로 했어요…그들은 서로 "형"이라고 부르지만, 저를 부를 때 항상 "선생님"을 제 이름 뒤에 붙였어요…이제 3 학기가 되어서 다행이 저도 한국 생활에 적응이 되면서…우리 학과에서 좋은 친구도 생겼어요. 드디어 그들은 이제 저를 보면 반말만 한 사이가 되었어요.

[14] K4-2

저는 한국에서 1 년간 교환학생의 경험이 있었어요. 오히려 대학원을 다니면서 친구를 사귀지 못했어요. 처음 입학했을 때 한국인과 적극적으로 연락하는 자세를 취했는데…제가 느낀 것은 뭐냐면…제가 많은 말을 했는데 한국인들은 한두 마디 말로만 대답하고 대화는 끝.

K3 와 K4 는 대학원에 입학한 후 학생들이 바쁘다는 느낌이 든다고 진술했다. K3, K4 는 K5 와 다르게 한국인 친구와 의사소통을 할 때 처음에는 학술 관련 대화를 했지만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러나 동시에 대부분의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중국인

동포와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다는 점을 진술하였다.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유학 초기에 한국인 친구를 만들겠다는 생각으로 능동적으로 다가갔는데 그들의 냉담으로 점점 열정이 식고 시간이 지나 주로 중국인들과 놀게 된다는 현상을 포착되었다. 친구를 사귀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보다 양측의 공동 노력이 더 중요한데, 한국인의 전반적인 중국에 대한 비우호적인 감정이[1] 친구를 사귀는 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중국인의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문제에 있어 중국인의 적극적인 노력과 한국인이 중국인에 대한 열려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3.3 문화차이

문화 차이에 있어 연구참여자마다 조금씩 다르나, 수업의 구성 방식, 한국 음식, 술 문화 등 주제들을 언급했다.

[15]K1-3:

[1] 미국에 기반을 둔 데이터 인텔리전스 및 조사 회사 Morning Consult 가 2022 년 7 월 1 일부터 26 일까지 42 개 국가별로 최소 756 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에 대한 평가"의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좋아하지 않는다"(unfavorable)란 정서를 표출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많은 상위 3 개국은 한국(88%),일본(78%) 그리고 스웨덴(73%)이다. 이중에서 한국은 88%란 수치로 조사 대상 42 개국 중 중국에 대한 반감이 가장 많다는 국가로 부상된다.
(https://pro.morningconsult.com/instant-intel/china-alliance-with-russia-weakens-position-in-eastern-europe 2023 년 06 월 15 일 접속)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수업들중에서 한 수업이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교수님이 거꾸로 교실[1]의 방식으로 수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수업시간에 교수님이 자기 강의를 아주 적게 하시고, 수업은 주로 학생들의 발표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들 논문 주제가 완전 다양해서 이렇게 한 명씩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것은 학습된 지식점으로 하여금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만약에 교수님이 수업할 경우라면 PPT 로 수업을 하는 것이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사실 발표를 그렇게 싫어하지 않은데 발표를 해야 우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한 수업이 모두 학생의 발표로 구성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연구에 참여한 7 명의 학생 중 5 명은 중국 대륙 소재의 대학교를 졸업하고 1 명은 대만 학부 출신이며 나머지 한 명은 한국에서 학부를 졸업했다. 이중에서 두 명은 한국 대학원 수업의 구성 방식에 대한 부적응으로 스트레스가 생겼다고 발언했다. K1 의 발화에 따르면 어떤 수업은 모두 학생의 발표로 구성되어 교수로부터 배울 수 없다는 점에 불만을 표시했다. 수업 발표에서도 K6 학생은 한국의 발표 문화에 익숙하지 않

[1] 거꾸로 교실은 'Flipped Learning', 'Flipped Classroom', 'Flipping the Class', 'Inverted Classroom', 'Inverted Learning' 등의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플립러닝이라는 말보다는 거꾸로 교실이라는 말로 자주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영어명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 시작이 현장 교사들에 의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출처: 대한민국 교육부 공식 블로그.

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국어 실력이 늘었다고 연구자에게 말했다.

[16]K6-3: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사실 (수업 발표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되었는데 그 단계가 지나다가 보니 제 한국어 실력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에 관하여 이유경(2014)은 외국인 대학원생들이 발표 수업에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K6 학생은 발표로 스트레스를 받는 반면 한국어 실력도 자연스럽게 늘게 된다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여 줬다.

[17] K2-3:
저는 한국 음식이 맛없어서 적응이 잘 안 돼요. 그랬나 봐요. 어느 때 차를 타고 대림[1]에 가서 중국 음식을 먹을 때도 있어요.

[18] K7-3:

[1] 대림은 중국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서울시에 위치한 한 지역인데 서울의 '차이나타운'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https://www.kocis.go.kr/koreanet/view.do?seq=7687 2023 년 06 월 15 일 접속)

저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데 중국 음식보다 종류가 다양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어느 때 한 가지 음식에 싫증이 나서 무엇을 먹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있어요.

K2 는 한국 음식에 적응을 하지 못했지만 K7 처럼 즐기는 사람도 있었다. K7 은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지만 종류가 중국만큼 많지 않다고 언급했다. 중국은 한국과 달리 56 개 민족으로 구성되어 여러 가지 풍미를 지닌 민족 음식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의 영토 면적은 한국의 면적보다 약 96 배 크며, 이런 배경과 연결지어 볼 때 음식에 대한 부적응 현상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여겨진다.

다음으로 술 문화 차이에 관한 2 명 학생의 발화이다.

[19]K7-3
제 학과 분위기가 좋아서 가끔씩 과모임을 위해 같이 저녁에 술 마시러 갈 때도 있어요. 1 차 2 차 3 차… 그들은 늦게까지 술을 마실 수 있고…사실 저도 술을 꽤 좋아하지만 술을 너무 많이 마시면 다음날 제 머리가 아플 건데… 다음날에도 수업이 있어서 저는 힘들어요…

[20]K2-3
'술을 마실 때는 윗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상체와 고개를 살짝 돌려서 잔을 든 반대 손으로 입과 잔을 가리고 마셔야 한다' '남에게 술을 따라줘야 한다'는 것은 저는 한국에 와서야 알게 됐어요. 원래 제가 외국인이라 이런 것 몰라서 못할 수도 있는데…제 한국 친구들이 저에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침을 받고 나서 다음에 또 같이 나가서 회식하면 뭔가 잘못할까 봐 계속 신경 쓰여요.

발화자 K7 은 술을 좋아한다고 말했는데, 과모임으로 인해 머리가 아프게 되었을 뿐 더러, 모임이 항상 평일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음날 수업 정상 출석 및 공부에 문제를 일으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발언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K2 도 술을 마실 때 준수해야 하는 예절 문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선배와 술을 마실 때 스트레스가 있다고 언급했다.

3.4 향수병

'향수병'란 영역에 있어 보편적으로 연구참여자들은 향수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6 명으로부터 "괜찮다""없는 것 같다"는 대답을 얻었는데 한 명만 유학생활을 시작할 때 향수병이 좀 있었고 지금은 괜찮다는 대답을 얻었다. 이동 통신 기술이 굉장히 발달하였고, 고향과 거리가 가까워 쉽게 가족들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유학생활에 있어 큰 문제가 아니라는 대답을 얻었다. 다음에는 K4 가 발화한 향수병에 관한 내용이다.

[21]K4-4
저 사실 향수병, 그리움 이런 것에 대해 많이 느끼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조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많이 느끼지는 않아요.

이에 대해 역시 이은정(2009)과 이관식(2011)의 양적 연구에서도'향수병'은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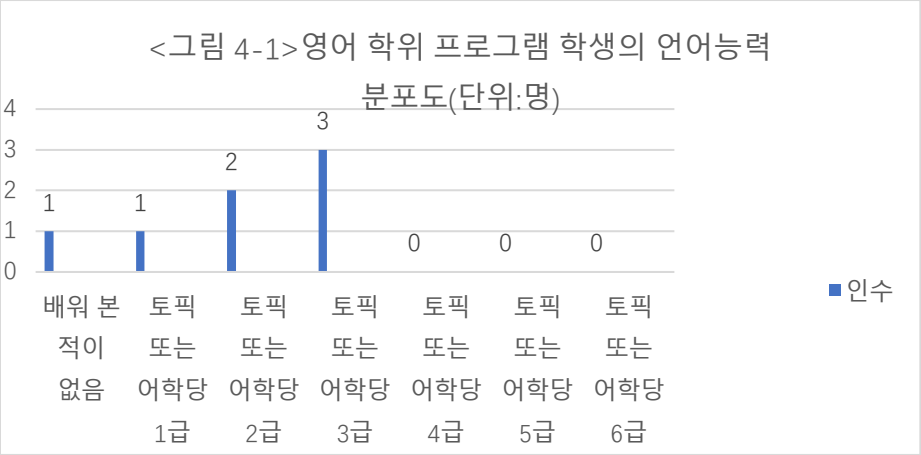
3.5 소결

이와 같이 ‘언어능력’‘대인관계’‘문화차이’‘향수병’의 네 가지 영역에서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의 문화적응 실태를 살펴봤다.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 집단 속에서는 한 명의 박사과정생을 제외한 연구참여자들은 모두 고급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했다. 그러나 ‘언어능력’에 있어 여전히 정확한 의사 및 감정 전달 실수에 대한 걱정, 정확하지 않은 한국어 이해로 일어날 수 있는 오해, 현지인과 언어능력 차이로 한국인들과 경쟁 또는 팀워크를 할 때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까 하는 두려움 등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적응 실태를 보여준다. ‘대인관계’에 있어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유학생활을 막 시작했을 때는 한국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적극적으로 한국인에게 다가가는 패턴을 포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의 바쁜 학업 생활과 보편적인 중국 또는 중국인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인해,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함에 따라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허춘영(1998)과 林娜 (2012) 의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속에서 도출된 결론, 즉 한국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의 부족, 편견 등 요인들이 대인관계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과 일치한 결론이다. ‘문화차이’와 ‘향수병’의 영역에서는 사람마다 개성 및 생활습관이 달라 일치한 패턴을 못 찾았지만 수업의 구성 방식, 한국 음식, 술 문화, 유학 초기의 향수 등 주제는 연구참여자들의 문화 적응에 있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된다.

제 4 장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문화적응 실태

4.1 언어능력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과 달리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의 경우 입학할 때 한국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전체적으로 한국어 능력은 아예 없음 또는 초, 중 등급에 머물고 있다. 도식화된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의 한국어 능력은 다음과 같다.



심층면접의 결과,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학습 기회 부족 및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1] E3-1:

대부분의 경우 교수님은 제가 외국인이란 점을 고려해 수업에도 수업 이외에도 주로 영어로 이루어졌어요. 단지 개별적인 상황의 경우 교수님은 수강생 수가 적거나 외국인이 거의 없을 때 한국어로 수업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 경우는 저는 보통 수업 후 직접 교수님의 영어 PPT 를

들고 독학으로 대처하고 있어요. 어느 때 교수님은 한 교시의 대부분 시간에 한국어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은 영어로 다시 설명한 경험도 있었어요.

E3 은 이공계 한 박사인데 중국에서 석사과정까지 거쳐 한국어를 전혀 못하는 상황에서 서울대학교의 박사과정생이 되었다. E3 은 평소 교수님과 학과 친구들은 주로 영어로 대화하기 때문에 한국인의 영어 억양이 알아듣기가 어려울까 걱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해외 유학의 경험이 있을 뿐더러 자기와 비슷하게 영어 모어 화자도 아니기 때문에 대화나 수업할 때 의사 전달 및 이해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입학하고 보니 한국어를 못해도 졸업할 수 있는 학위 프로그램임에도 불구, 여전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영어를 사용하는 수업인데 신청한 외국 학생의 수가 많지 않으면 교수의 편의를 위해 한국어만으로, 혹은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사용해 강의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러나 졸업을 위한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스스로 교수님의 영어 PPT 를 들고 독학하는 경우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E3 과 비슷하여 E1 그리고 E7 도 한국어를 못함으로 인한 불편을 호소했다.

[2]E1-1:
저 입학했을 때 한국어를 전혀 못해도 이 박사 과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들어서 교수님께 메일을 소통하면서 신청했어요. 그러나 실제 와보니 우리 학과에서는 2 개나 3 개 필수 과목은 한국어로 강의를 하거든요. 그래도 다행이 이 과목들의 읽어야 되는 논문들은 다 영어 논문이에요. 교수님께 착하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인 것을 감안해 다른 한

국인 반 친구들은 숙제나 발표를 할 때 다 한국어를 쓰지 만 저의 경우 영어를 해도 된다고 허락 주셨어요.

E1 은 박사로 입학한 후에야 몇 개 수업은 한국어로 강의한다는 것을 깨달았고 자신의 한국어 능력으로는 수업을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교수님께 영어를 사용해도 되냐는 요청까지 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한국어로 발표하고 어떤 사람은 영어로 발표했던 경험을 공유하였다. E1 은 자신의 프로그램은 영어 학위 프로그램이지만 채워야 되는 학점이 많은데 비해 영어로 강습하고 발표하는 수업들이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른 대학원까지 가서 영어 수업을 청강하였다고 언급하였다.

[3]E7-1:

제 교수님은 곧 은퇴하실 거예요. 연세가 많으셔서 사실 영어를 잘하시는데 영어로 수업하는 자체가 힘들어요. 그래서 교수님은 연구실에 한 명 똑똑한 학생을 제 mentor 로 지정해 제가 학업에 있어 질문이 생길 때마다 그 친구에게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 친구는 사실 제 나이보다 더 어려요. 그래서 자꾸 그 친구에게 물어볼 때 저 사실 좀 미안한 기분도 들어요. 다들 다 스트레스가 많고 바쁜데… 그래서 가끔씩 저도 맛있는 과자들을 연구실까지 가져가 친구들에게 나눠요. 고마운 마음으로…

E7 은 언어능력 부재로 자신의 교수보다 연구실에 있는 후배들에게 더 많은 미안함을 표했다. 연구실의 친구들이 연구하느라 바쁜데 계속 그들에게 찾아가서 교수님의 수업 내용을 물어봐야 하기 때문에 미안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스스로 자료를 찾아 독학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진

술했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 언어 때문에 학습 효율이 크게 떨어지자 E7 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와 달리 E4 학생이 속한 대학원에서 대부분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하고 있지만 추천 논문이나 책들은 한국어로 쓰여 있기 때문에 다른 한국 학생들에 비해 스스로 배울 수 있는 지식이 부족하다는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 [4]E4-1:
> 제가 듣고 있는 수업은 영어 수업이지만 교수님은 때로는 우리의 지식 범위를 넓히기 위해 한국어 문헌 같은 걸 추천해주실 때가 많아요. 사실 제 대학원에 공부하는 한국인의 수량은 적지 않거든요. 이럴 때 저는 더 깊이 공부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고 생각해요.

언어능력으로 인해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5]E7-1
> 제가 마트에 가면 보통 진열대의 레벨을 먼저 Papago[1]로 번역하고 사고 싶은 것을 사거든요. 어떤 날에 제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번역기를 가지고 번역을 해서 판매원에게 보여주면 판매원은 그 물건을 주기도 해요. 계산할 때, 아주 간단한 영어 숫자를 말하면서 손짓까지 하면 한국 사

[1] 파파고(Papago)는 한국어를 포함한 다양한 언어 간의 번역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기반의 번역 서비스이다. 네이버(Naver)라는 한국의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개발되었으며, 온라인 및 모바일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다.

람들이 알아들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 한국에 생활하다 보니 간단한 숫자는 말할 수 있어요. 때때로 제가 가격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한국 사람들은 계산기에 값을 입력하거나 종이에다가 적으면서 저에게 보여주기도 해요.

E7 은 생활하다 보니 한국어로 간단한 계산이 가능해져서 밖에서 장을 볼 때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방법을 공유해 줬다. E5 와 E1 은 간단한 일상 생활에서는 한국어를 못해도 적응할 수 있지만 반대로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들을 공유하였다.

[6]E5-1
한국은 외국인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학교에서 사실 한국어를 못해도 편하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아프면 학교 보건소에 가서 의사 선생님 영어를 할 수 있고, 심지어 우리 학교 도서관 근처에 있는 우리은행에는 외국인이나 중국 학생을 위한 영어나 중국어 서비스 창구가 설치되어 있어요. 한국에도 무인 시설이 많던데 예를 들어 무인편의점, 무인테니스장…하지만 큰 병이 날 때는 귀찮아졌어요.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한국말 잘하는 중국 친구들에게 부탁을 해야 되고…저 좋은 중국 친구들이 많아요.

글로벌 환경에서 한국은 점점 다문화국가로 전환되고 있다.1 많은 외국인의 유입으로 한국은 어디에서든 영어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에서 한국 네티즌들이 “2030 만 사는 세상도 아니고 나이 드신 분들이나 어린아이들이 뭐 주문이나 할 수 있겠나”라며 메뉴판 한국어로 쓰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청구까지 등장했다.[2]이렇게 보면 E5 하던 말 또한 일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5 와 비슷하게 E1 도 친구가 없으면 한국의 생활이 많이 불편해질 것 같다고 말했다.

[7]E1-1

제가 가끔 학교 밖에 병원이나 뭐 하러 가야 할 때 영어가 통하지 않으면 한국인이나 중국인 친구를 데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어느 때 친구에게 민망한 기분도 들어요.

이와 같이 심층면접을 통해서 연구참여자들은 보편적으로 한국어의 능력 부족으로 인한 학습 기회 부족과 일상생활 속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밝혀졌다. 7 명의 연구 참여자들 중 5 명 학생은 한국어의 중요성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한국어 어학당을 통해서, 혹은 독학하는 방식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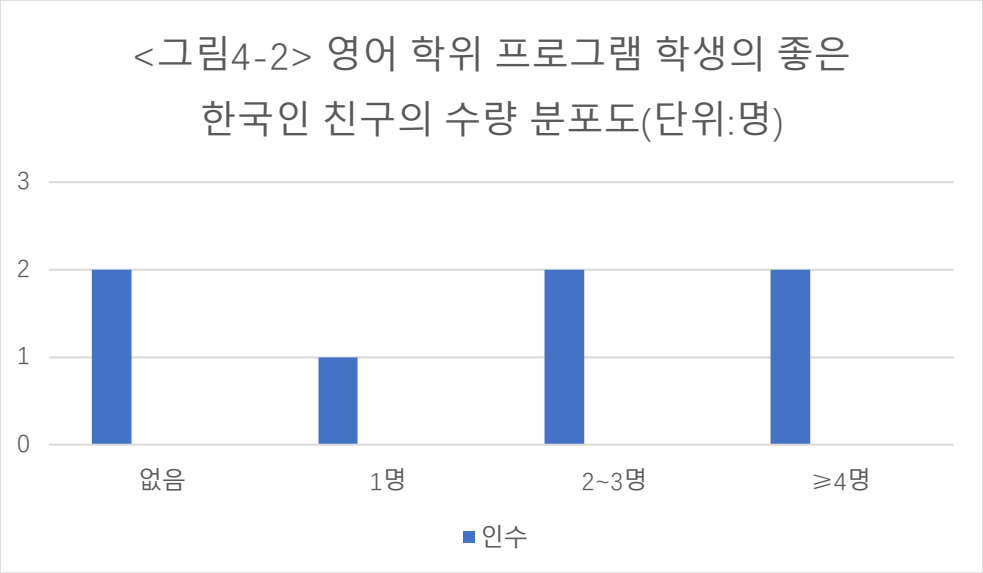
---

[1] 한국 법무부에 따르면 2018 년부터 2022 년까지 한국은 전체 인구 대비 체류 외국인 비율은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2019 년 4.87%에서 2021 년 3.79%까지 감소하였다가 2022 년 4.37%로 증가하였다. 2022 년의 한국에 체류 외국인의 수량은 2246 천명에 돌파하였다.

[2] 김태원. 서울경제. https://www.sedaily.com/NewsView/29POELFAXQ (검색일:2023. 6. 15).

4.2 대인관계

우선, 대인관계에 있어 친한 한국인 친구의 수를 질문하고 이를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8] E6-2

제 한국 동창이 저한테 매일 머리를 감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E6 은 예전에 한국인으로부터 중국인이 매일 머리를 감느냐는 질문을 받은 경험을 공유해 줬다. 이는 제 3 장에서 살펴본 K2 의 발화[8]와 연결시켜 분석할 수 있다. K2 는 한국인 친구들이 주변에 중국에 관한 물건이나 음식이 보이면 항상 K2 에게 질문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머리를 감느냐는 질문은 완전 일상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그러나 E6 의 경우 유학생이란 신분으로 타지에서 살다 보니 쉽게 모국과 자신을 연결시켜 스스로 "국가대표"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林娜,2012) 林娜(2012)와 허춘영(1999)의 연구를 따르면 중국 유학생은 '중국이나 중국

인을 망신시키지 않도록 마땅치 않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함'이란 행동 요령을 지키면서 타지에서 조심스레 행동한다. 중국인은 타지에서 중국의 이미지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지며, 이는 민족적 정체성일 수도 있고 왜곡된 재현 양상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 때문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임지혜·최정화, 2009)때문에 머리를 감느냐는 식의 발언과 기저 의식은 중국인의 대인관계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효과가 미칠 수 있다고 여겨진다.

[9] E4-2
제가 수업이 끝났을 때 한국 사람들이 저보다는 서양 사람들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분명히 느꼈어요.

[10]E6-2
우리 학과는 100 명 조금 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중에 중국인 학생이 2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백인 친구 좀 많아요.(중략)그들과 함께 놀다 보니 그들의 privilege 더 느끼게 되었어요(중략)이런 예가 많은데 예를 들어서 주문할 때 뭐랑 같이 주문해야 가능한데 제가 가서 주문하였을 경우는 절대 해결 안 되는데 제 백인 친구 가면 항상 상의할 유지가 생겨요(중략)

E4 는 수업에 서양인 친구가 많은데, 한국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서양인들에게 찾아가 얘기를 나눈다는 경험을 공유해 줬다. E6 은 학과에서 백 명 넘는 친구가 있는데 이중에서 서양인 친구와 한국인 친구가 가장 많다고 진술하였다. 서양인 친구가 많다 보니 차별을 당한 듯한 경험이 많다고 말했다. 자신이 친구와 외식하러 나갈 때 특정 메뉴를 같이 주문

해야 매장에서 식사가 가능한데 서양인 친구가 가서 주문할 경우 이런 요구가 전혀 없었던 체험을 공유하였다. 이종일(2012)의 연구에서는 영어 모어 화자는 한국 사회에서 타 집단의 외국인과 구별되는 사실을 제시하는 바가 있다.1이종일의 연구에 의하면 한국 전쟁을 거친 한국은 북미 또한 서유럽 나라의 고성장을 감지하면서 이들의 나라에 대해 점차적으로 존경 및 배움의 태도가 형성되었다고 제시하였다. 이 때문에 한국 사회는 보편적으로 영어 모어 화자를 다른 언어권의 외국인과 구별시키며, 이들을 영어를 사용하여 국내 거주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주장도 찾을 수 있다.(주혜림,2015)

이와 더불어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이 한국어 언어를 잘 못해도 좋은 한국인 친구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를 질문하였더니 다음과 같은 응답을 받았다.

> [11]E1-2
> 저는 한국에서 친구들이 많아요. 한국인 친구도 있고 중국인 친구도 있어요.(연구자: 그런데 한국어를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과 접하게 되었어요?) 제가 KPOP 덕질2이라 평소에 KPOP 를 통해서 한국 친구들과 만나게 되었어요. 한국 친구들은 영어를 할 수 있어서 우리 평소에는 영

---

[1] 한국 사람들은 백인이나 소득수준이 한국보다 높은 나라(미국·일본)에서 이주한 사람들은 폄훼하지 않는다. 한국 사람들은 '영어=백인=기독교'로 등식화하여 서구 백인들의 과학적 인종주의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종일 2012:114)

[2]덕질(일본어:otaku 御宅): 어떤 분야를 열성적으로 좋아하여 그와 관련된 것들을 모으거나 파고드는 일.(출처:Naver 국어 사전)

어로 대화해요. 그외에도 제 중국 친구들이 한국에 오래 있었기 때문에 그녀들의 소개를 통해서 몇 명 한국 친구도 사귀게 되었어요.

E1 은 KPOP 콘서트를 다니며 자연스럽게 다른 KPOP 팬인 좋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었다. 이후 친구 소개의 방식으로 더 많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게 되고 지금도 친구들과 콘서트도 가고 밤에 나가서 같이 놀기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E1 은 자신의 친구들은 서울대 학생이 아니라고 진술하였다.

[12]E3-2
제 한국인 친구는 그의 부모님은 산둥성 (山東省) 에서 사업을 하는 관계로 어렸을 때 산둥성 (山東省) 에서 학교를 다녔어요. 그 친구가 서울대생이 아니지만 중국어를 할 줄 알고 우리는 대부분 시간 중국어로 의사소통을 해요.

E3 은 한국어를 잘 못하지만 우연히 산둥성 (山東省) 에서 생활해 본 적이 있는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고 자주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했다.

[13]E2-2
제 대학의 가장 친한 친구가 바로 한국인인데, 그때 서울대학교에 신청할 때도 저를 많이 도와 주고, 저를 대신해 서울대 행정실에게 전화해 지원 서류에 관한 정보까지 도와주었어요. 그는 한국의 직장인이 되고 우리 지금도 같이 나가서 놀고 있어요.

E2 는 캐나다에서 대학교를 다녔을 때 한국인 친구와 만나게 되었고, 한국에 대해 관심이 워낙 많아서 친구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며 점점 그 친구와 친해졌다. E2 는 이렇게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은 고마운 일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한국인 친구가 없는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부터 얻은 대답이다.

[14]E5-2
실제로 저는 수업 이외에는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은 중국인이에요. 한국인 친구가 있든 없든 상관없고, 제 친구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느 정도 사교계가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편하다고 생각하면 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발화[14]에 보이 듯이 E5 는 주로 중국인들과 여가생활을 보내고 있으며 한국인 친구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자기가 편안하다고만 느끼게 하면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4.3 문화차이

문화차이에 있어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수업의 구성 및 적응이 어렵다고 말했는데, 한국의 야간 생활패턴, 그리고 미에 대한 추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발화가 있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5]E1-3
저는 중국의 대학교를 졸업했어요.(중략) 그리고 제가 영국에서 석사과정을 수행했을 때 저희과에 아마 30~40 명쯤의 학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주마다 숙제나 과제가 많

지 않긴 했지만 교수님은 reading 을 읽으라고 요구를 했어요. 또한 다음 수업에서 교수님은 어떤 학생을 지명해서 답이 뭔지 물어보는 경우도 거의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한국에 와서 특히 제가 지금 다니고 이는 학과의 경우 한 수업에 학생수가 많아도 15 명에 불과해요. 매우 소규모예요. 우리 학과의 경우 수강해야 하는 수업이 그리 많지 않지만 과목씩 완성해야 하는 숙제가 많고, 제가 지금 수강하고 있는 한 과목은 주마다 발표를 해야 하고, 매주 reading 5 편씩을 읽은 후 코멘트를 달아야 되고…처음에는 이것 때문에 완전 스트레스 받았어요.

E1 의 발화[15]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생은 중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영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이 학생의 경험으로는 수업의 인원 수도 적을 뿐 아니라 학생의 이름을 직접 호명해서 의견을 묻는 행위도 한국에 와서 알게 됐다는 것이다. E2 도 비슷하게 수업의 구성에 대한 부적응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16]E2-3
제가 캐나다에서 학부 다닐 때는 학점을 채우려면 숙제, 조별 과제만 쓰고 시험을 보면 될 건데 발표 이런 것 거의 없어요. 아니. 그냥 없어요.

그외에는 E4 와 E1 은 한국의 야생활패턴에 있어 스트레스가 있다고 말했다.

[17]E4-3

제가 서울대학교 첫 학기 왔을 때 생물시계 때문에 적응이 잘 안 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지금은 괜찮고 저도 거의 한국화되었어요.(웃음) 첫 번째 조별 토론 했을 때 같은 수업을 듣는 그 한국인 학생은 토론 시간은 밤 9 시로 정했어요. 그때 저 좀 충격적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토론 끝나고 나서 거의 11 시 다 되었을 텐데… 제가 대학교 다녔을 때 친구들이랑 조별 토론이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 토론 시간은 저녁 식사를 하기 이전으로 정했거든요.

E4 는 서울대학교에 입학한 후 첫 조별 토론을 했을 때 같은 조의 한국인 친구가 토론 시간을 밤 9 시로 정하는 것으로부터 문화충격을 받은 체험을 공유하였다. 처음에는 적응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한국의 생활패턴에 완전히 적응했다고 말했다.

[18]E1-3
저 한국 친구들이 좀 많기 때문에 모임도 많아요. 친구들은 다 늦은 저녁에 모임 행사를 하는데…저는 낮에 공부해야 하고 밤에서 같이 친구들을 만나야 되니까 요즘 하루 4 시간만 잤어요.

중국은 예로부터 “일년의 계획은 봄에 달렸고, 하루의 계획은 아침에 달렸다”(一年之計在於春, 一日之計在於晨)는 속담이 있다. 이는 사람은 일찍 일어나고 이른 아침에 노동을 시작하며 부지런하라는 의미를 담은 말이다. 또한 중국은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심야에 영업하는 가게는 그리 많지 않다. 따라서 중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패턴에 있어 문화충격을 받을 수 있다고 여겨진다.

[19]E1-3

다들 몸매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이는데 제가 이에 대해 힘들긴 하지만..그래도 따라해 꾸미기도 해요. 당연히 매번 아니죠. 아마 제 성격 때문인 것 같아요. 어차피 저에게는 남의 시선은 중요하지 않아요.

[20]E5-3

이번 학기 저 화장의 횟수가 많아졌어요. 저는 이게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예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분까지 좋아져요. 왜 안 되죠? 그렇지 않아요?

면접 도중 E1 은 한국인의 미모와 세련됨을 언급하면서 한국 곳곳에 거울이 있는 현상을 언급하였다. 쇼핑몰의 에스컬레이터, 화장실, 심지어 편의점과 지하철역 안에서도 거울을 흔히 볼 수 있다. E1 은 한국의 미모 추구를 따라가는데 있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반대로 E5 는 중국에 있을 때는 화장을 많이 하지는 않는데 화장 횟수가 많아져 예뻐진 자신을 보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를 했다. 이런 미에 대한 추구 현상은 한국인은 외모의 아름다움과 자기 이미지의 관리를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여기기 때문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는 것은 예(禮)의 표현일 뿐 아니라 직장에서 요구하는 좋은 자기 관리와 진지한 태도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동시에 한국 사회에서 미모는 권리를 쟁취하는 한 도구로서 더 많은 자원을 얻는 데 있어 도움이 된다고 여겨져 그 역할이 더 강조되고 있다(姚同伟, 2017).

4.4 향수병

'향수병' 영역에서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향수에 시달리지 않는다고 말했으며 E3 은 유학의 최초 반년 동안 향수병이 조금 있었다가 반년이 지난 후 괜찮아졌다고 말했다.

> [21]E3-4
> 저 처음에는 반년 동안 향수병이 좀 있었는데 그후에는 괜찮아졌어요.

> [22]E2-4
> 제 경우는 아마 좁은 기숙사에 있을 때 또는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생겼을 때 가족을 좀 기리워해요. 하지만 별거 아니에요. 저는 자주 그들에게 전화를 해요.

향수 영역에서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보편적으로 향수병이 심하지 않다고 밝힌다. 가끔 가족이 그립지만 영상통화나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가거나 친구를 만나는 것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4.5 소결

이와 같이 '언어능력''대인관계''문화차이''향수병' 4 개 영역에서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의 문화적응 실태를 살펴봤다.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 집단 속에 4 명은 한국어 능력 초급자이며, 나머지 3 명은 한국어 능력 중급에 머물고 있어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어를 그리 잘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언어능력'에 있어 영어 학위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한

국어 능력의 부족으로 한국어 수업 후에도 스스로 독학해야 한다는 점, 소재 대학원의 부족한 영어 수업 숫자로 인해 다른 대학원의 수업을 들어야한다는 점, 한국어로 수업이 진행되어 수업에서 배우는 것이 아닌 연구실 친구에게 배우는 등의 어려움이 발견된다. 영어 학위 프로그램 유학생은 영어 수업 개설의 부족, 영어 전용 강좌의 부족에 따른 학습 기회 감소로 인해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언어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어 한국어 학습에 점차적으로 적극적으로 임하는 현상이 발견된다.

'대인관계'영역에서는 "국가대표"란 의식 속에 자신과 모국 또는 모국인을 연결시켰을 때 편견 및 차별로 인해 대인관계의 형성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 그러나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한국어를 잘 못하더라도 비교적 적은 부적응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좋은 한국인 친구가 많이 있는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에 대한 심층면접의 결과, 한가지 특징이 발견된다. 그들은 같은 취미 생활, 혹은 같은 지역에서 살았다는 등의 공통점이 있어 비슷한 언어 및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가 된다는 점이다. 깊은 교류가 있으려면 생활범위를 초월한 영역에서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관계는 일의 관계나 일상의 관계와 구분이 된다(陳向明, 2004;林娜, 2012)는 관점으로 보았을 때 한국인 친구 사귀기를 원하는 중국 유학생들에게 좋은 방법들 중 하나이며 문화적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된다.

'문화차이'영역에서는 특정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수업의 구성 및 진행방식에 대한 부적응, 한국의 밤 생활패턴, 그리고 미에 대한 추구로 인한 스트레스가 문화적응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발견했다. 미에 대한 추구로 인해 영향을 받아 따라해 자신이 즐겁게 꾸

미기도 시작하는 현상도 포착된다. '향수병'영역에서는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공통적으로 괜찮다고 답변하여 서울대 중국인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향수병으로부터 문화적응에 비교적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제 5 장 결론

5.1 연구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한국 정부가 2005 년 외국인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해 실시했던 한국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적응 연구에서 소외된 영어를 사용해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의 한국 문화적응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한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중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또한 한국 최고의 학부로 여겨지며 동시에 학업 경쟁이 치열한 서울대학교에 다니는 14 명의 중국인 대학원생을 뽑아 반구조화된 심층면접을 통해 그들의 문화적응 실태를 파악했다.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표본을 추출할 때, 학위 과정의 언어차이별로 또한 서울대 중국인 대학원생의 석사 과정생 및 박사 과정생의 비례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그외에도 최대한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전공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비확률적 표본추출 방법을 채택했다.

본 연구가 답하고자 하는 질문은 2가지이다. 첫째, 서울대 재학중인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의 학생 및 영어 학위 프로그램의 학생은 문화적응 실태는 어떻게 다른가? 둘 째, 이런 차이를 일으키는 원인은 무엇인가?

주제분석법을 이용한 횡적인 비교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첫째, '언어능력'의 영역에서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전체적으로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보다 한국어 구사 수준이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높은 수준의 한국어를 구사함에도 정확한 의사 및 감정 전달 실수의 걱정, 정확하지 않은 이해로 일어난 오해, 현지인과의 언어능력 차이가 부정적인 평가로 이어지는 점 등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 문화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학생을 유치할 때 영어 성적을 요구하지 않는 영어 학위 프로그램에서도 유학생들은 영어 수업 개설의 부족과 이에 따른 학습 기회의 감소로 인해 적응 과정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대인관계'에서 한국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과 영어 학위 프로그램의 학생은 모두 타지에 있어 "국가대표"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인이 중국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고정관념과 편견을 형성함에 따라 한국인 친구를 사귀기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 집단 속에서는 한국인 친구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패턴이 포착된다. 같은 취미 생활 혹은 같은 지역에서 살았던 경험으로 서로가 비슷한 체험이 있을 때 더 자연스럽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패턴이다.

'문화차이' 및 '향수병'의 영역에서는 두 집단에서 모두 '향수병'으로 인한 문화적응 부적응 현상이 포착되지 않는데, 이는 유학생의 색다른 성격 및 생활습관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다. '문화차이'영역에서도 다양한 성격 및 생활습관으로 인해 두 집단간 같은 패턴이 못 찾지만 수업의 구성 방식, 한국 음식, 술 문화, 야간 생활패턴, 그리고 미에 대한 추구 등 원인으로 인해 문화적응 부적응 현상이 포착된다.

연구 결론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먼저 ‘언어능력’에 있어 영어 학위 프로그램 학생들은 한국어를 못해도 졸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나, 한국어는 한국의 문화까지 담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중요하다. 반대로 정부와 학교는 유학생의 유치 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습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어 전용 강좌를 적극적으로 확보해야한다.

‘대인관계’에 있어 양국간의 정확한 인식 구축이 있어야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편견 및 차별 등 부정적인 요소의 영향이 줄어들 수 있다.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식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대중매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진실한 대중 매체 보도가 중요한데 이를 잘 이용하면 양국 사이에 우호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와 더불어 학교는 유학생의 한국인 친구를 만드는 데 있어 여가 동아리 또는 중국어를 전공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단체까지 연결시켜주어 비슷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사귀도록 하는데 있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문화차이’에 있어 중국인 유학생은 사전에 상대 문화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데, 한국어를 배울 때 그 언어만 배우기 보다는 언어 속에 담겨 있는 문화까지 익혀야 한다. 더군다나 문화적응은 외국인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 일방향의 적응이 아니라 현지 한국인들도 외국인 유학생이 가진 문화와 정서를 이해하고 이들을 받아들이는 쌍방향의 적응이라는 인식이 중요하다.(林娜, 2012)따라서 한국인과 유학생은 열려 있는 마음으로 서로 이해해야 한다.

‘향수병’에 있어 중국인 유학생들은 향수를 잘 달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중국 동포들이 서로 도와주는 것은 도움이 된다.

5.2 연구의 한계점

본 연구는 2005 년에 외국인유학생 유치 촉진을 위해 실시한 한국 '영어 전용강좌 및 한국어 연수 프로그램 지원'정책에 입각하여, 문화적응 연구에서 소외된 대상인 한국에서 영어로 사용해 학위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들을 섭외하여 그들의 시각으로 해석된 첫 시도적 문화적응 연구이다. 본 연구는 학자들의 시선을 이 소수 집단에 집중시키고 그들의 목소리를 알리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적응에 연구는 주로 적응의 영향요인, 적응 스트레스의 측정 그리고 영향 요인과 적응의 상관관계 등 주제에 둘러싸 다루어 왔지만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그 의미가 설명되었지만 그 맥락을 명확히 밝히지 못 하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해서 적응실태, 원인 또는 맥락까지 찾는 데에 있어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시작으로 한국에 있는 영어 학위 프로그램의 학생에 관한 연구가 더 많아지길 바란다. 또한 이 연구가 영어 학위 프로그램의 학생의 문화적응 환경 개선 또는 중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을 희망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가지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선,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재학 중인 14 명 대학원생만 선정하고 다른 학교, 또는 다른 계층의 학생이 배제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론을 일반화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는 모두 중국인 유학생의 신분이기 때문에 라포(rapport)를 잘 형성할 수 있고 같은 중국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심층면접을 했을 때 더 심도있는 대화를 할 수 있었으나 내부인 시각과 외부인 시각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고 문헌

한국어 자료

-학위논문

김지혜. 2019.「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언어 불안과 문화적응과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현진. 2018.「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문화적응 비교 연구-중국, 베트남, 몽골, 일본 유학생들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지연. 2009.「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관계」. 우석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와타나베 요시야스. 2002.「일본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 적응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승종. 1995. 「문화이입과정스트레스와 유학생의 신념체계 및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정. 2009.「한국어 학습자의 숙달도에 따른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장연. 2005.「재한 중국 유학생의 한국어 숙달 수준 및 문화 적응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목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주혜림. 2015.「중국어 모어 학습자와 영어 모어 학습자의 한국문화 적응 스트레스와 한국어 숙달

도의 관계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윤범. 2017.「몽골어 모어 학습자의 언어능력과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관계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허춘영. 1998.「재한 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과 정신건강 실태: 한족, 조선족 유학생간의 비교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황지인. 2008.「재한중국유학생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대학생활 적응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林娜. 2012.「재한 중국 유학생의 사회문화적 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Arushanyan Mariam. 2019.「한국에서 러시아어권 이주자의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언어 능력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학술지

김경석. 1996. 「사회언어학 연구에서의 자료 수집 방법」. 『응용언어학』 12. pp.209-218.

김영경. 2009. 「중국·일본 유학생의 한국 대학생활 적응을 위한 요구 분석」. 『상담학 연구』 10권 1호. pp.535-559.

김현진·김영주. 2015. 「재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 문

화적응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어 사용능력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권 4호. pp.201-225.

김혜숙. 1999. 「집단범주에 대한 고정관념, 감정과 편견」

김희경 외. 2010. 「국내 중국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영향요인」. 『성인간호학회지』 22권 2호. pp.143-153.

마경희. 2022.「한국 내 중국인 유학생들의 문화적응 실태와 대응」. 『성균차이나브리프』 10권 1호. pp.160-167.

박지연. 2016. 「부담줄이기 기능의 종결어미 '-는데'와 '-거든'에 얹히는 문말 억양 연구: 중국어권 한국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이중언어학』 64. pp.1-20.

배상률 외. 2017.「중국인 유학생의 한국 사회·문화적응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제 · 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17-49-03』 pp.25-269.

성기조. 2012. 「이상한 존대말.수필시대」 7. pp19-21.

신혜영. 2011. 「미국 대중매체에 나타난 아시아 남성의 이미지: 편견과문제점에 대한 고찰」 『한국학연구』 36. pp.33-57.

이경상 외. 2018.「중국인 유학생의 대학사회 생활적응 및 한국사회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요인」. 『청소년학연구』 25권 5호. pp.231-

264.

이관식. 2011.「광주 지역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연구」.『시학과 언어학』제21호. pp.151-173.

이유경. 2014.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원 문화와 학업적응에 대한 연구」.『이중언어학』제55호. pp.249-284.

이종일. 2012.「사례분석을 통한 한국 인족편견 특성」.『사회과교육연구』19권 4호. pp.95-120.

임지혜·최정화. 2009.「미디어 이용 실태와 문화적응에 관한 연구- 국내 중국인유학생을 중심으로」.『교육문화연구』15권 2호. pp.183-206.

정명희. 2011.「결혼이주여성의 한국사회적응스트레스 발생요인에 대한 실증 연구」.『국제지역연구』15권 2호. pp.451-481.

정옥정 외. 2021.「재한 중국 학부 유학생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군집 유형 분석 및 유형별 특성 분석」.『아시아교육연구』22권 4호. pp.889-918.

정진경·양계민. 2004.「문화적응이론의 전개와 현황」.『한국심리학회지』23권 1호. pp.101-136.

李喆永. 2019.「针对在韩中国留学生的语言不安感及其文化适应程度的分析研究」.『韩国语教学与研究』2019(1). pp.45-53.

赵晨薇. 2020.「언어 불안이 문화적응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재한 중국인 학습자'를 중심으로」.『국어교육연구』제 74 집. pp.205-234.

- 방안 및 보고서

『2001년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종합 방안』

『2014년 전략적 유학생 유치 및 정주 지원방안』

『2018년 서울대학교 학생복지 현황 및 발전방안 최종보고서』

- 인터넷 자료

충청투데이. "고문전"의 정의.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3836 (검색일:2023. 5. 1)

2021년 한국교육부 교육기본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294&lev=0&statusYN=W&s=moe&m=020404&opType=N&boardSeq=88238

한국교육개발원(KEDI). 2022 년 국내 고등교육기관 내 외국인 유학생 통계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350&boardSeq=93469&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09&opType=N

중국어 자료

- 학위논문

姚同伟. 2017.「 容貌至上主义 : 韩国女性整容文化研究」. 中央民族大学硕士学位论文.

姜子莲. 2020. 「韩国接收留学生政策研究及其对中国的启示」. 南昌大学硕士学位论文.

- 학술지

胡玲·张妮. 2020.「大学生“考研热”的现状与动因分析」『大学教育』. 2020(07) . pp.163-167.

万明钢·杨宝琰. 2010.「文化适应： 理论及测量与研究方法」『世界民族』. 2010(04). pp.1-9.

- 일간지

张燕. 2022.「考研热度攀升, 上岸愈卷愈难」.『中国经济周刊』, 6월 15일, 43.

- 책

陳向明. 2004. 『旅居者和‘外國人’-留美中國學生跨文化人際交往研究』. 北京: 教育科學出版社.

영어 자료

- 학술지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pplied Psychology, 46(1): 5-68.

F.W.Rudmin. 2003. “Field Notes from the Quest for the First Use of ‘Acculturation’.” Cross-Cultural Psychology Bulletin, vol 37:24-31.

F.W.Rudmin. 2003. “Critical History of the Acculturation Psychology of Assimilation, Separation, Integration and

Marginalization."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Vol7:3-37.

Gullahorn. J. T. and Gullahorn. J. E. 1963. "An Extension of the U—Curve Hypothesis. "Journal of Social issues, 19:33—47.

Lysgaard. S. 1955. "Adjustment in a Foreign Society: Norwegian Fulbright Grantees Visiting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Social Science Bulletin, 7:45—51.

Oberg. K. 1960. "Cultural Shock : Adjustment to New Cultural Environments . "Practical Anthropology, 7:177—182.

Sandhu. D. S. and Asrabadi. B. R. 1994. "Development of an Acculturative Stress Scale for International Students: Preliminary findings." Psychological Reports, 75: 435-448.

- 책

Berry. J. W. 1990. *Psychology of Acculturation : Understanding Individuals Moving between Cultures.* Newbury Park : Sage.

D. J. Sam. and J. W. Berry. 2006.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Danckwortt. D. 1959. *Problem der Anpassung an eine fremde Kultur: eine sozialpsychologische Analyse der Auslandsbildung.* Hamburg.

Kenneth D. Keith. 2013. *The Encyclopedia of Cross-Cultural Psychology.* Wiley-Blackwell John Wiley & Sons Inc

Patton. M. 2002. *Qualitative Research and Evaluation Method(3rd ed.).* Thousand Oaks,CA:Sage.

Tolich. M. and Davidson. C. 2003. *Social Science Research in New Zealand (2nd ed).* Auckland: Pearson Education.

Virginia Braun. and Victoria Clarke. 2013. *Successful Qualitative Research: a ractical guide for beginners.* London : SAGE.

[부록 1] 인구학적 정보 묻는 설문지

学位课程语言差异和韩国文化适应压力的现象研究

-以首尔大在读中国大学院学生为研究对象

确定要参与本研究吗？ 是 □ 不是 □

◆研究对象的人口统计学相关选项(请根据自己的真实情况一一作答)

1. 您的性别是 ○ 男 ○ 女
2. 您的年龄是 ___ 周岁
3. 您在首尔大学的身份是 ○ 硕士在读（第 ___ 学期） ○ 博士在读（第 ___ 学期）
4. 您在来首尔大学习以前，有无学习过韩语的经历 ○ 有 ○ 无 4-1. 有的话，您是使用什么方法学习的韩语 ○ 中国语言补习班 ○ 韩国语学堂 ○ 其他:_____ 5. 您在首尔大什么学院什么专业学习 学院: _____ 专业: _____
6. 您在首尔大上课以及完成发表、作业和参加考试时，主要使用什么语言 ○ 中文 ○ 韩语 ○ 英语 ○ 其他：_____
7. 您在韩国待的时间是 ○ 6 个月以下 ○ 6 个月～1 年以下 ○ 1 年以上～3 年以下 ○ 3 年以上
8. 您的韩国语能力等级(TOPIK)是 （如没有参加过韩国语能力考试，但是有在韩国语学堂学习过韩语的经历，也请勾选与您的语学堂班级相对应的等级） ○ 1 级 ○ 2 级 ○ 3 级 ○ 4 级 ○ 5 级 ○ 6 级 9. 您在韩国有无亲戚及家属 ○ 有 ○ 无
10. 您的月生活费是 ○ 0 万～50 万 ○ 50 万～100 万 ○ 100～150 万 ○ 150 万以上
11. 您有几位韩国人好朋友 ○ 没有 ○ 1 名 ○ 2～3 名 ○ 4 名及以上

[부록 2] 연구참여동의서

受访知情同意书

尊敬的_____:

您好！

您被邀请参加一项关于“学位课程语言差异和韩国文化适应压力的现象研究-以首尔大在读中国大学院学生为研究对象”的研究，本知情书提供给您一些信息，在您决定是否参加该项目之前，请尽可能仔细阅读下文内容。它可以帮助您更好地理解项目的目的、程序。请您仔细阅读，如果有任何问题可以向研究人员提出，研究人员会及时为您解释，直到您完全理解。

1、项目课题：学位课程语言差异和韩国文化适应压力的现象研究-以首尔大在读中国大学院学生为研究对象

2、研究调查者：张嘉欣

3、项目研究目的：了解首尔国立大学在学的中国大学院学生在参加不同语言学位项目的情况下，韩国文化适应压力有怎样的不同并基于此，提出相应的减少文化适应压力的项目开发新方向

4、研究过程

采访对象：首尔国立大学在学的中国大学院学生（研究生、博士生）

采访内容包含：

韩国求学期间的人际关系、生活饮食文化习惯、学业情况及思乡情况等韩国适应现状有关问题

采访方式：面对面访谈

采访时长：约 60 分钟

接受采访报酬：10000 韩币

5、参加本研究可能出现的不便与风险

参加该研究不便在于：会占用您大约 60 分钟的工作或生活时间，研究人员将尽力根据您的时间安排采访，尽量减少对您造成的不便。参加该研究的风险在于：部分问题可能涉及个人隐私。具体对于隐私的保护您可以参见下文的隐私保密条项，并且在采访中，您有权拒绝回答任何您觉得涉及隐私的问题。

6、个人信息及记录的保密

如果您决定参与本次研究，您参与本次研究以及您在研究中的个人资料将严格保密，可识别您身份的信息将不会透露给任何研究组外成

员，除非获得您的许可。采访将会被录音并被保存在设置密码的电子设备内，仅供研究人员查阅。

7、关于中途退出研究

在接受采访过程中，如果您有疑惑可以随时提出问题。如果该研究引起您极度不适，或因您的个人原因，您无法继续参与本次研究，请尽快告知研究人员，以便我与您沟通以及项目的后续安排。

8、联系人

如果您对于研究或是将来在研究中有任何问题，或者您认为您在研究中受到了研究人员的不公正对待，请及时联系研究人员：

联系负责人：张嘉欣

邮箱：zhangjiaxin@snu.ac.kr

电话：010-8058-9019

我自愿参与本次研究活动，对以上所有信息我已经知情，对于相关问题我已经和研究人员联络并得到答复，并已了解我的个人信息是保密且受保护的，在研究过程中我可以随时退出该项目。

签字：　　日期：

Abstract

A Study about the Foreign Students' Acculturation Stress Pattern from the Perspective of Language Difference in Graduate Programs - Focusing on the Chinese Graduate Studen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ZHANG JIAXIN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Based on the policy of "Expansion of English-taught Programs and Korean Language Learning Program "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2005 in order to promote the attraction of foreign students, the foreign students who have been always excluded from acculturation-related research, that is, the foreign students in South Korea, who are pursing their degree using English, will be the research subject in this research to investigate their Acculturation Status.

In order to achieve this, since Chinese students group has the highest proportion among foreign students in South Korea, 14 Chinese graduate students as a sample was selected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highest academic institution in Korea where

fierce academic competition may exist. Semi-structured interviews were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ir Acculturation Status.

In order to reflect the actual situation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comparatively study the impact of language differences in degree programs, reflect the actual proportion of Chinese postgraduate master students and doctoral students in Seoul National University, and at the same time ensure the diversity of majors to the greatest extent, the Stratification Method was selected.

This study attempts to answer two questions. First, what are the differences in acculturation among the graduate students in Korean language degree programs and English language degree programs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Second, why these differences exist? Thematic Analysis is used for horizontal comparative analysis to draw conclusions, and based on the conclusions, suggestions on how to help the research subjects better adapt to Korean society will be put forward.

After analysis, in the field of "language proficiency", the conclusion that students in English degree programs don't have a very good command in Korean in general compared to the students in Korean degree programs can be made. Although the students in Korean degree programs can use Korean quite well, they still face acculturation problems which are caused by their worries about making mistakes in conveying accurate opinions and emotions, misunderstandings in Korean listening, and receiving negative evaluations due to limited language ability compared with Koreans. Among students in English degree programs, it is found that students

are having difficulty adapting due to the stress caused by the lack of learning opportunities due to the insufficient number of English-conducted classes.

In the field of “interpersonal relations”, consciousness of “National Representatives” are found among both Korean degree program students and English degree program students, which combined with the stereotypes and prejudices which are generated due to Korean’s lack knowledge about China, are making negative effects in their formation of relationship. Besides, an interesting pattern was found among English degree program students, which is - one person tends to make Korean friends more easily and naturally if they share a similar experience.

Almost no one is suffering “Homesickness” and in the field of “Cultural Shock”, no consistent pattern could be found because of the differences in personalities and lifestyles among the subjects.

Since in this study, only 14 graduate students from Seoul National University were selected and students from other universities were excluded, there is a limitation that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cannot be generalized. In addition, since both the researcher and the research subjects are Chinese students, it is easily to form rapport and have more in-depth conversations. But the possibility still exists that the balance between insider and outsider perspectives may not been maintained.

Keywords : Acculturation Stress, English Degree Program, Chinese Students
Student Number : 2020-28793